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9월 30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6 국외 항만 주요 동향
 31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02 부산항, 신항 국산 자동화 하역장비 반입 시작
- 07 광양항, 해상풍력 생산시설 1,228억 원 투자협약
- 14 군산항, 한중 직항로 화물·여객 역대 최대 실적 전망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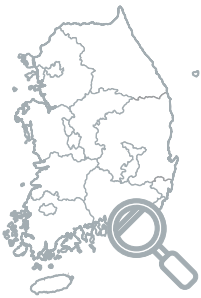
- 16 중국, 바이오메탄올 8,016톤 급유로 단일 선박 세계 최대 기록
- 23 미국, 연간 200만 TEU 규모 걸프 연안 신규 터미널 건설 승인
- 27 유럽, 주요 항만 파업 속 아시아-유럽 항로 정시 운항률 한 자릿수로 하락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33 2026년 2분기 실질 GDP, 전분기 대비 0.6% 성장
- 45 석탄발전 60기, 2040년까지 전면 폐지안 제시
- 49 핵심광물 51종으로 확대 추진, 최대 365일분 비축 계획

0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에
도착한 트랜스퍼 크레인
2기

① BPA, 국산 자동화 하역장비 반입 시작¹⁾

-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는 국내 최초 자동화부두인 신항 서컨테이너 2-6단계 부두에 국산 자동화 하역장비 반입을 시작함
- 트랜스퍼 크레인(T/C, Transfer Crane)은 2025년 4월부터 북항 자성대부두에서 구조물 조립과 제작 검사를 거쳤으며, 2026년 8월 24일 총 34기 중 2기의 트랜스퍼 크레인 해상운송을 완료함
- 북항에서 신항까지 운송에는 약 6시간이 소요되며, 장비 운송은 총 17차례에 걸쳐 2027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임
- 앞서, BPA는 2026년 6월 컨테이너 크레인(C/C, Container Crane) 6기 반입을 완료했으며, 신항에 도착한 장비는 시운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자료: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8.26.),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4&dataSid=36730(2026.09.28.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8.26.),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4&dataSid=36730(2026.09.28. 검색)

2 크루즈 선사 협력 확대²⁾

-  BPA는 글로벌 주요 크루즈 3개 그룹과 부산항 입항 확대 및 준모항·모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 BPA는 2026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MSC 크루즈(MSC Cruises), 로얄캐리비안 그룹(Royal Caribbean Group), 노르웨이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NCLH, Norwegian Cruise Line Holdings)를 방문함
 - 이들 3개 그룹과 부산항 입항 확대, 준모항·모항 활성화, 크루즈터미널 운영 및 인프라 개선 등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개별 브랜드 유치를 넘어 그룹 차원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준모항·오버나잇·럭셔리 크루즈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글로벌 3개 크루즈 그룹의 2027년 부산항 입항 계획은 127항차로 확정되어, 2026년 87항차 대비 46% 증가함

 - MSC 크루즈는 2026년 23항차에서 2027년 37항차로 부산항 입항을 확대하고, 럭셔리 브랜드 익스플로라 저니(Explora Journeys)를 신규 유치함
 - 로얄캐리비안 그룹은 2026년 54항차에서 2027년 74항차로 부산항 입항을 확대하고, 럭셔리 브랜드 실버씨(Silversea)의 입항과 부산 오버나잇 일정을 확대함
 - 노르웨이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는 2026년 10항차에서 2027년 16항차로 부산항 입항을 확대하고, 프리미엄·럭셔리 브랜드의 항공·철도 연계 신규 상품을 검토함
-  BPA는 준모항·오버나잇 운영 확대와 터미널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모항 전환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임

 - 마이애미 MSC 전용 크루즈터미널을 시찰하고, 수하물 처리, 자동 체크인, 보안검색, 관세·출입국·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체계를 점검함
 - 해당 터미널은 대형 크루즈선 1척에서 발생하는 승객 약 5,000명과 수하물 약 6,000개를 약 2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이와 함께 항공·철도 접근성 개선, 터미널 수용 능력 확충, 수하물 처리 및 CIQ 프로세스 효율화를 병행하는 단계적 모항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8.27.),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4&dataSid=36733\(2026.09.28. 검색\)](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4&dataSid=36733(2026.09.28. 검색))

3 스마트물류 전환 지원사업 추진³⁾

-  해양수산부와 BPA는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물류 자동화·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이번 사업은 총 105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내 항만배후단지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물류 전환 지원 시범사업임
 - 해양수산부는 정책·예산을 지원하고, 부산항만공사는 보조사업자로서 기업 선정과 사업관리를 수행할 예정임
 - BPA는 소기업 분야 3개社와 혁신 분야 2개社 등 총 5개社를 선정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지원할 계획임
 - 선정기업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자동화, 통합 플랫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설비·시스템 도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예정임

신항 배후단지 전경



자료: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9.07.),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3&dataSid=36780(2026.09.28.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9.07.),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3&dataSid=36780(2026.09.28. 검색)

2) 인천항



1 2027년 크루즈선 129항차 입항 대비 관계기관 운항지원 협의⁴⁾

-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IPA)는 9월 3일 ‘2027년 인천항 크루즈선 운항지원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크루즈선 입항 계획과 관계기관별 행정지원 방안을 논의함**
 - 이번 협의회는 출입국·세관·검역(CIQ) 기관과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입항 계획을 미리 공유하고, 대규모 여객이 원활히 승·하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됨
 - 인천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국립인천검역소 등 12개 기관에서 3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운영지원 개선사례와 기관별 건의사항을 논의함
 - 2027년 입항 예정 크루즈선은 총 129항차이며, 이 중 중국발 크루즈가 110항차, 인천항을 출발·도착지로 이용하는 모항 크루즈가 18항차임
 - 이는 2026년 9월 기준 계획으로, 향후 선사 운항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초대형 크루즈 모항 운항과 오버나잇(Overnight) 운항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중점 협의함**
 - 승객 정원 5,600명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2027년 6월 14일과 20일 두 차례 인천항을 모항으로 이용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한 CIQ 운영계획과 기관별 지원사항을 협의함
 - 모항은 승객이 여행을 시작·종료하는 거점항이므로, 대규모 승객과 수하물의 승·하선 및 CIQ 절차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 운영 역량이 요구됨
 - 크루즈선이 인천항에서 하룻밤 머무는 오버나잇 운항도 2026년 10~11월 2항차에 이어 2027년 4항차가 예정되어, 크루즈터미널 운영시간 연장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함께 점검함
- IPA는 인천항을 ‘모항 크루즈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임**
 - 중국발 크루즈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발 크루즈 유치 확대와 함께 대규모 여객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만서비스와 CIQ 대응능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임
 - 이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항만서비스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 인천해수청도 크루즈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2027년 입항과 승·하선 관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 해사신문(2026.09.07.), <http://www.haesa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806>(2026.09.28. 검색)

2 자동차 물동량, 중고차 감소 속 신차·환적 물동량 증가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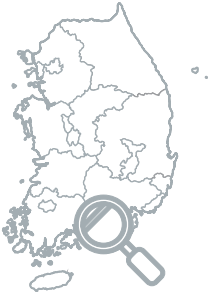
-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2026년 1~8월 인천항의 자동차 물동량(신차·중고차·환적)은 54만 7천 대로 전년 동기(60만 1천 대) 대비 9% 감소함
 - 그동안 자동차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온 중고차 수출이 줄어든 결과로, 같은 기간 중고차 물동량은 33만 1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함
 - 반면 신차와 환적 물동량이 크게 늘면서 인천항 자동차 수출 구조가 중고차 중심에서 신차·환적 위주로 재편되는 추세임
-  중앙아시아·중동 시장 악재로 중고차 수출이 위축됨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중고차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키르기스스탄·러시아 판로는 사실상 막힌 상태임
 - 러시아가 자국 신차 산업 육성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중고차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임
 - 중동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물류비가 크게 오르고 현지 규제가 까다로워짐
 - 다만 알바니아 등 동유럽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IPA는 중고차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음
 - 국내 전체 중고차 물동량 중 인천항 비중은 2021년 87.7%에서 2025년 71.1%로 낮아졌으며, 올해 또다시 위축될 전망이다
-  대미 수출 확대와 평택항 포화로 신차·환적 물동량이 증가함
 - 신차 물동량은 17만 2천 대로 전년 동기(14만 4천 대) 대비 19.8% 증가함
 - 한국지엠 등 완성차 업체의 대미 수출이 확대되고 미국 현지에서 소형 SUV 판매가 호조를 보인 영향임
 - 환적 물동량은 4만 3천 대로 전년 동기(1만 7천 대) 대비 153.7% 급증함
 - 주요 완성차 수출기지인 평택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인천항으로 분산된 물량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됨
 - IPA는 미국 수출용 생산계획이 늘어난 만큼 신차 물동량이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환적 물동량도 평택항 적체 등으로 2026년 말까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5) 연합뉴스(2026.09.23.),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2132700065>(2026.09.28.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시, 광양항 배후단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 시설 확대 추진⁶⁾

- 광양시는 2026년 9월 9일 해상풍력, 에너지, 산업플랜트 분야 3개 기업과 총 1조 428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함

 - 협약은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연계 광양만권 외투 활성화 포럼 및 투자 협약 행사’에서 체결됐으며, 3개 기업 투자로 신규 일자리 198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업(주)EEW-KHPC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 1,228억 원을 투자해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생산 역량을 높일 계획임
 - 이번 투자에 따라 EEW-KHPC는 83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며, 해상풍력 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시장 대응력과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나머지 두 기업은 울촌 제1일반산업단지에 발전설비와 산업플랜트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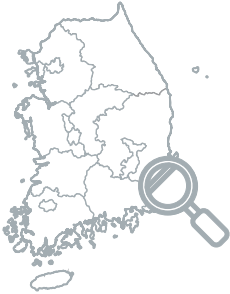
 - 씨지앤울촌전력(주)은 9,000억 원을 투입해 557MW 규모의 천연가스 복합화력 열병합발전 설비를 조성하며, 55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 (주)하이테크엔지니어링은 2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정유, 화학 등 플랜트 분야 제작 수요에 대응할 산업플랜트 모듈 및 철골구조물 생산 시설을 구축하며, 신규 채용 인원은 60명임
 - 광양시는 이번 투자가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등 기존 산업·물류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역의 에너지, 해상풍력, 산업플랜트 분야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음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6) 브릿지경제(2026.09.09.),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909501314>(2026.09.25. 검색)

4) 울산항



1 UPA, 로열 바겐보그·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북극항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⁷⁾

- 울산항만공사(UPA, Ulsan Port Authority)는 로열 바겐보그(Royal Wagenborg),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함

 - 로열 바겐보그는 2025년 기준 북서항로(NWP, Northwest Passage) 상업 화물운송 48회로 세계 최다 실적을 보유한 네덜란드 해운선사임
 - 세 기관은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울산항 기항과 친환경 연료공급 확대, 운항 정보·경험 교류, 국내 운항 매뉴얼 작성을 지원할 예정임
 - 아울러 한국-북미 동부 연안 간 잠재 화물 수요를 발굴하고, 북극항로 운항에 적합한 내빙등급 선박 확보에도 협력함
- 세 기관은 2026년 최대 4척의 북극항로 통과 선박을 울산항에 기항시켜 연료공급과 화물 하역을 추진할 계획임

 - 축적한 운항 노하우는 매뉴얼로 제작해 국내 선사와 항만에 공유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북극항로 백서 제작을 추진할 예정임
 - 울산항은 최근 10년간 북극항로 운항 선박이 18회 기항했으며, 이 중 북동항로는 5회, 북서항로는 13회를 기록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울산항만공사(2026.08.20.),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6602>(2026.09.28. 검색)

2 해상환적 기반시설 확대 추진⁸⁾

-  UPA는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확대를 위한 위험성 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함

 - 울산항은 육상 질소 공급과 해상환적이 동시에 가능한 부두가 부족해 선박 이동에 따른 추가 비용과 선석 확보 어려움이 발생함
 - 울산항만공사는 2025년 12월 1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용역을 수행함
 - 북신항 액체부두, 신항컨테이너부두, 한진신항부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해상교통 안전성, 계류시설 적정성, 안전시설 적정성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실시됨
 - 용역 결과 대상 부두 모두 해상환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울산항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이 선박조종시뮬레이션에 참여해 안전성을 검증함
-  UPA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확대 운영을 목표로 울산해수청에 해상환적 부두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임

 - 해상환적 가능 부두가 확대되면 질소 공급을 위한 선박의 부두 이동이 줄어 이용자의 물류비와 작업시간을 절감하고 선석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8) 울산항만공사(2026.08.26.),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6606>(2026.09.28. 검색)

5) 평택·당진항



1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삼성전자와 5천억 원 규모 가전 물류센터 투자 협약 체결⁹⁾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는 2026년 9월 29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CDC 물류센터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평택 포승(BIX)지구에 들어서는 물류센터의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함
- 삼성전자는 포승지구 물류시설용지 약 11만㎡에 총 5천억 원을 투자해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조성하며,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함
- 이 센터는 제품의 입·출고와 보관, 분류, 배송 등 물류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물류센터(CDC, Central Distribution Center)로 운영될 예정임
-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삼성전자 가전제품뿐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돼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제품도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배송될 것으로 전망됨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센터가 운영되면 약 3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평택항 물동량 확대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포승지구는 평택항 인근에 조성된 총 204만㎡ 규모의 산업단지로, 평택항 배후 산업단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됨
- 이 지구는 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기계·전자 등 제조업과 물류·유통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 이번 협약으로 대규모 물류시설이 들어서면서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음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9) 이데일리(2026.09.29.),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706806645585040>(2026.09.30. 검색)

6) 포항항



1 포항해수청, 포항항 하역사업장 대상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현장 실습 실시¹⁰⁾

- 🔍 포항해수청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포항항 항만하역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및 현장 실습’을 실시함
 - 이번 교육은 포항항 위험물 취급량 증계 대응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상 대응 열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교육에는 각 지방해수청 항만안전점검관과 관내 주요 하역사업장인 OCI·동서화학공업 관계자 등이 참석함
 - 주요 교육 내용은 항만 내 화학물질 관련 법령 및 안전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국제해사기구 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분류체계, 포장 및 산적액체 위험물 관리 기준, 선박 간(STS, Ship-to-Ship) 하역작업 안전 규정 등 실무 중심 항목으로 구성됨
 - 이론 교육과 함께 OCI 탱크저장소와 동서화학공업 케미컬 선박 접안시설에서 현장 실습을 병행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0) 매일신문(2026.09.02.),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90215271760970>(2026.09.28. 검색)

7) 동해·묵호항



1 동해해수청, 국제여객선 전기차 화재대응 합동훈련 실시¹¹⁾

-  동해해수청은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여객선 ‘이스턴드림호’에서 전기차 화재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함

 - 이번 훈련은 동해해수청이 주관하고 전기차 화재대응 교육·훈련 전문업체와 국제여객선 선사가 협조해 진행됨
 - 훈련에는 구조기관인 동해소방서·동해해양경찰서와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참석함
-  전기차 소화설비 교육과 실제 차량을 활용한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함

 -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부주수관창,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소화용 전문 설비를 소개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함
 - 이어 화물 적재구역에서 실제 자동차를 활용해 화재대응 훈련을 시연함
-  국제여객선 화재 대응을 위해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동해해수청은 국제여객선에서 화재 발생 시 관내 구조기관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훈련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6.09.15.),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34160>(2026.09.28. 검색)

8) 대산항



① 대산산단 화학사고 공동방제 체계 구축 추진¹²⁾

- 화학물질안전원은 대산산단 화학사고의 해양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 공동방제 체계 구축을 추진함**
 - 대산산단 공동방제 체계 구축은 2024년 울산, 2025년 여수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사례임
 - 대산산단은 석유화학 전용부두 31개 선석이 해안선을 따라 배치돼 화학물질 유출 시 해양오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구조임
 - 협약에는 화학물질안전원, 금강유역환경청, 서산시, 서산소방서, 평택·태안해양경찰서 등 6개 행정기관과 2개 민간 협의체, 46개 사업장이 참여함
- 화학물질안전원과 관계기관은 사고 상황 공유와 방제자원 동원을 위한 역할별 대응체계를 마련함**
 -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 상황 공유 앱과 육·해상 방제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장비와 인력 동원을 조정함
 - 금강유역환경청은 초동대응과 유출 물질 분석, 서산소방서는 화재·폭발 진압과 인명구조, 서산시는 오염수 차단과 주민 대피를 담당함
 - 평택·태안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발생 시 방제 함정·자재 투입, 사고 해역 주변 선박 통제, 민간 방제선 동원을 담당함
 - 협약기관과 민간 사업장은 야간·주말·대정비 기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2) 전자신문(2026.09.14.), <https://www.etnews.com/20260914000340>(2026.09.28. 검색)

9) 군산항



① 스타오 직항로, 화물·여객 역대 최대 실적 전망¹³⁾

■ 군산항과 중국 스타오를 잇는 한중 직항로의 2026년 화물·여객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 이 직항로는 2008년 개설됐으며, 2만 톤급 화객선이 주 3회 군산과 스타오를 오가며 컨테이너 화물과 여객을 수송함
- 선사인 석도웨리(주)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컨테이너 화물 실적은 4만 7,238TEU로 집계됨
-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6년 연간 화물 실적은 2025년 실적(6만 2,692TEU)을 넘어선 6만 4천여 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특송화물 통관장이 화물 증가를 견인함

- 2024년 2월 개장한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은 군산물류지원센터 내 1,450평 규모로, 직항로를 통해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화물을 취급함
- 통관장에는 X-ray 검색대, 컨베이어벨트, 동시구현시스템 각 3기와 판독실 등이 설치되어 있음
- 2026년 하반기부터 통관장이 확대 운영되면 인천항을 거치던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군산항은 국내 항만 중 대규모 물류기지가 개발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르자오·칭다오·옌타이와 가장 가까워, 인천항·평택항과 견줘 화물 유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여객 수송도 증가세를 보임

- 9월 23일 기준 여객 수송 실적은 6만 2,389명으로 전년 동기(5만 6,898명) 대비 9.7% 증가함
- 호텔 수준의 쾌적한 선내 환경에서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강점이 부각되면서 양국 승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고군산군도, 전주 한옥마을,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인근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3) 전북도민일보(2026.09.28.),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131\(2026.09.28. 검색\)](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131(2026.09.28. 검색))

10) 마산항



1 창원시, 가포지구 1종 항만배후단지 산업용지 공개경쟁입찰 분양¹⁴⁾

-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가포지구 내 산업용지 5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함
- 분양 대상 토지는 마산합포구 가포동 669번지 외 5필지로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 위치하며, 입찰 신청은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됨
- 입주 자격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등)을 갖추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려는 기업으로 한정됨
- 창원시는 이번 분양을 통해 항만물류 연계 기업 입주로 마산항 활성화와 지역 내 생산·고용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4) 한국경제(2026.09.2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33579h>(2026.09.28.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상하이항, CMA CGM 단일 선박 바이오메탄을 8,016톤 병커링으로 세계 최대 기록 경신¹⁵⁾

- 프랑스 선사 CMA CGM은 SIPG에너지 및 상하이전기와 협력하여 상하이항에서 중국산 바이오메탄을 8,016톤의 병커링을 완료함
 - 연료를 공급받은 선박은 1만 3,000TEU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CMA CGM 오스뮴호로, 아시아와 남미 동부 연안을 연결하는 SEAS 2 항로에 투입되고 있음
 - 이번 공급량은 2026년 3월의 종전 기록(3,643톤)을 넘어선 단일 선박 대상 바이오메탄을 병커링 세계 최대 규모임
- 상하이전기는 중국 동북부 생산기지와 상하이항을 연결하는 바이오메탄을 생산·운송·공급망을 활용하여 연료를 공급함
 - 바이오메탄올은 지린성 타오난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뒤 다롄항으로 운송되어 집하·보관되며, 이후 해상운송을 거쳐 상하이항에서 선박에 공급됨
 - CMA CGM은 이번 공급이 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한 대체 선박연료의 대규모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중국 협력사들과 지속가능한 연료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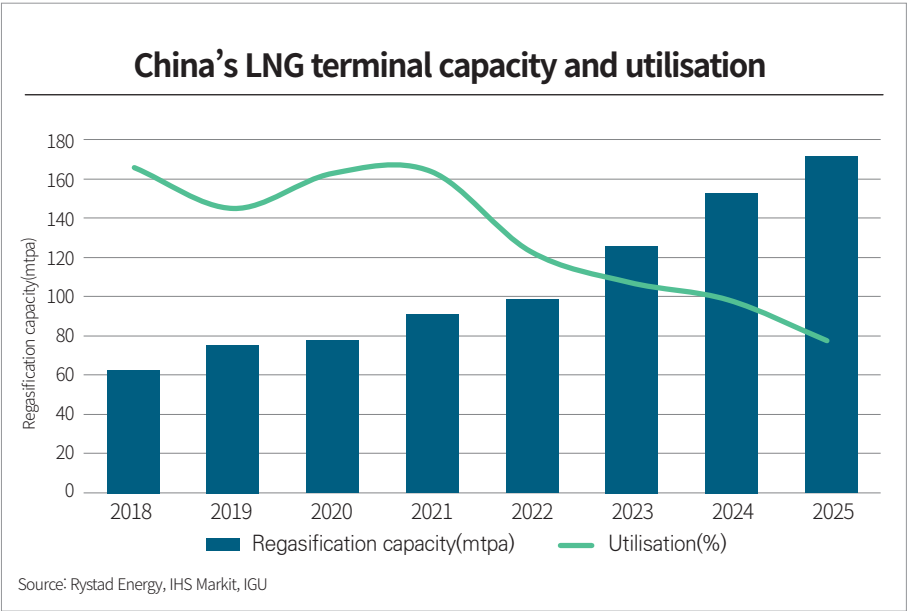
15) Seatrade Maritime News(2026.08.18.), <https://www.seatrade-maritime.com/bunkering/world-s-largest-green-methanol-bunkering-in-shanghai-port>(2026.09.28. 검색)

2 LNG 터미널 저가동 속 신규 건설보다 저장능력 확충에 중점¹⁶⁾

-  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터미널을 빠르게 확충했으나, 수입 감소로 평균 가동률이 약 40%까지 하락함
 - 중국의 2025년 LNG 수입터미널 인수 능력은 연간 약 1억 7,500만 톤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를 기록함
 - 중국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2025년 LNG 수입량은 전년 대비 10.6% 감소했으며, 터미널 평균 가동률은 2018~2021년 약 75%에서 약 40%로 낮아짐
 -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동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현물 구매 유인이 줄어 터미널 유희설비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신규 터미널 건설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한 연안 저장망 강화를 강조함
 - 최신 석유·가스 5개년 계획은 2030년 재기화 능력 목표를 연간 2억 톤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중국에너지보가 보도한 기존 전망보다 약 18% 낮은 수준임
 - 계획에 명시된 신규 터미널 사업은 1건이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저장·공급 조절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힘
 - 선박중개회사 EA김슨은 2028년 이후 신규 LNG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중국이 여유 인수 능력을 활용해 구매량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함
-  중국의 LNG 수입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계획 설비 전체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중국의 1~7월 LNG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3,379만 톤이며, 중국 에너지 당국은 2030년까지 연간 가스 수요가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에너지 분석업체 라이스타드에너지는 추가 가스 수요의 상당 부분이 LNG 수입으로 충당되며, 수입량은 2040년경 약 1억 4,500만 톤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라이스타드에너지는 해당 수입 규모에서도 인수 설비가 남을 것으로 보고, 터미널 운영사가 저장탱크 건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16) Lloyd's List(2026.08.21.), <https://www.lloydslist.com/LL1158253/China%E2%80%99s-LNG-terminal-boom-sets-stage-for-its-next-swing-buyer-role>(2026.09.28. 검색)

중국 LNG 터미널 용량 및
가동률



자료: Lloyd's List(2026.08.21.), <https://www.lloydslist.com/LL1158253/China%E2%80%99s-LNG-terminal-boom-sets-stage-for-its-next-swing-buyer-role>(2026.09.28.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아시아



① 수에즈운하 복항 확대로 유럽 양하항 선박 집중 우려¹⁷⁾

- 아시아와 지중해·유럽을 오가는 선박의 홍해·수에즈운하 통항이 꾸준히 늘면서, 도착항에 선박이 집중되고 항만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해운시장 분석기관 Xeneta는 수에즈 경로 통항이 늘면서 서로 다른 경로를 거친 선박이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중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함
 - 엔텐항-로테르담항 간 평균 운항기간은 희망봉을 경유하는 9개 서비스 기준 41일이었으나,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수에즈운하를 통과한 선박은 27일 만에 도착함
 - 수에즈 경유 선박은 희망봉 경유 선박보다 최대 14일 빨리 도착하므로, 경로 전환 과정에서 두 경로의 선박이 첫 번째 양하항에 함께 몰릴 수 있음
- 선사들은 양하항을 변경해 물량을 분산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Maersk)는 AE19 서비스의 첫 번째 양하항을 모로코 탕헤르메드항에서 이집트 포트사이드항으로 변경해 화물을 분산함
 - 다만 Xeneta는 주요 정기선 서비스가 핵심 허브항 기항을 전제로 짜여 있어 모든 서비스의 기항지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수에즈 경로로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선박 집중과 항만 혼잡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수에즈 경유 선박은 증가했으나 중동 분쟁 이전 수준을 밑돌**
 - 수에즈 경유 주당 평균 선복량은 중동 분쟁 이전인 2023년 8월 119개 서비스, 93만 1천 TEU에서 2024년 8월 38개 서비스, 7만 TEU로 급감함
 - 이후 2025년 8월 50개 서비스, 10만 2천 TEU로 회복한 데 이어 2026년에는 46개 서비스, 21만 3천 TEU로 증가함
 - 서비스 수는 줄었지만 주당 선복량이 약 두 배로 늘면서 척당 평균 선복량은 2,658TEU에서 4,957TEU로 커짐
 - 2026년 신규 서비스가 주당 12만 9,661TEU, 기존 서비스 대형화가 1만 4,654TEU를 추가했으나 역내 선사가 3만 3,817TEU를 줄여, 순증 규모는 주당 11만 498TEU임
 - Xeneta는 희망봉 우회 기간에 늘었던 피더 선박이 줄고 있어, 원양 정기선의 실제 수에즈 복귀 규모는 순증 규모보다 클 것으로 평가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7) Seatrade Maritime News(2026.09.11.),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suez-returns-raise-bunching-fear\(2026.09.28. 검색\)](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suez-returns-raise-bunching-fear(2026.09.28. 검색))

2 자와할랄네루항, 8월 컨테이너 물동량 개항 이래 월간 최대 기록¹⁸⁾

- 인도 자와할랄네루항만청(JNPA)은 2026년 8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83만 1,956TEU로 개항 이래 월간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힘
 - 8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69만 5,966TEU) 대비 19.54% 증가함
 - 이는 2026년 4월에 세운 종전 월간 최대치(77만 1,418TEU)를 넘어선 실적임
 - 8월 총 화물 처리량은 974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81% 증가함
- 주요 터미널도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함
 - 바라트 뭄바이 컨테이너 터미널은 30만 3,032TEU, NSFT는 12만 3,876TEU를 처리해 두 터미널 모두 월간 최대 물동량을 기록함
 - 이러한 터미널별 실적이 8월 JNPA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견인함
- 회계연도 누적 실적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감
 - 인도 회계연도가 시작된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누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383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15.45% 증가함
 - 같은 기간 총 화물 처리량은 4,636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4% 증가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8) Maritime Gateway(2026.09.08.), <https://www.maritimegateway.com/jnpa-records-831956-teus-in-august-2026-highest-monthly-container-throughput/> (2026.09.28. 검색)

3 싱가포르, 브라질과 10번째 그린·디지털 해운회랑 구축¹⁹⁾

싱가포르를 브라질을 10번째 그린·디지털 해운회랑(Green and Digital Shipping Corridor) 파트너로 추가함

- 양국은 대체 해양연료, 디지털 정보교환, 해양기술에 초점을 맞춘 ‘싱가포르·브라질 그린·디지털 해운회랑’ 구축 MOU를 체결함
- MOU에는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 브라질 항만·공항부 장관이 서명함
- 이로써 세계 최대 벙커링 허브인 싱가포르와 재생연료 주요 신흥 생산국인 브라질이 연결됨

무배출 해양연료 공급망 구축과 항만 시스템 간 정보교환을 추진할 계획임

- 양국은 해운·에너지 기업과 협력해 무배출 및 근접 무배출 해양연료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임
- 브라질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세계 최대 선박연료 시장이자 주요 환적 허브인 싱가포르의 위상이 공급망의 양 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부문에서는 양국 해사·항만 시스템 간 정보교환 확대를 모색하고, 신규 해양기술의 연구와 도입도 추진할 예정임
- 다만 구체적인 연료 종류와 첫 시범 운항, 이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싱가포르의 해운회랑 네트워크가 중남미로 확대됨

- 싱가포르의 해운회랑 네트워크는 이미 아시아, 유럽, 호주,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걸쳐 있으며, 이번 협정으로 중남미까지 넓어짐
- 싱가포르는 2026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항·롱비치항과의 해운회랑을 3년 연장했으며, 한국과는 2025년 말 해운회랑 협정을 체결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9) Splash 247(2026.08.31.), <https://splash247.com/singapore-adds-brazil-to-green-shipping-corridor-network/>(2026.09.28. 검색)

4 일본, 중동 불안 속 8월 원유 수입 2025년 평균 상회²⁰⁾

-  일본의 2026년 8월 원유 수입량은 하루 236만 배럴로 중동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이는 2025년 평균 원유 수입량(하루 227만 배럴)보다 약 4% 많은 수준임
 - 원유 수입량은 4월 이후 매월 증가했으며, 특히 5월에는 전월 대비 119% 증가함
 - 일본 총리와 이란 대통령 간 협의와 4월의 일시적인 미국-이란 휴전이 수입 회복을 뒷받침함
-  중동산이 회복되는 가운데 미국산 수입이 급증함
 - 2026년 4~8월 일본 원유 수입에서 사우디아라비아·UAE산이 59.1%를 차지함
 - 카타르·쿠웨이트산은 3~7월 거의 반입되지 않다가 8월에 일본 항만에서 하역됨
 - 미국은 위기 기간 국가별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부상해 5~8월 전체 수입의 33.2%를 차지했으며, 미국산 월간 수입량은 연이어 10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함
 - 2016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일본 항만에 하역된 미국산 원유는 하루 평균 3만 8,300배럴에 불과했음
-  일본 정부는 비축유 방출 없이 수입으로 대응할 계획이나 9월 도착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 일본 정부는 9~10월 국가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다만 유조선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대신 수에즈운하를 거쳐 우회하면서 도착이 10월로 밀려, 9월 수입량은 2025년 월평균의 80% 수준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  사우디 송유관 공격으로 대체 수입경로에 차질이 우려됨
 - 2026년 4~8월 일본 원유 수입의 20% 이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동서횡단 송유관으로 수송한 안부항 선적 물량임
 - 그러나 송유관이 공격받으면서 이 대체 경로에 차질이 생겼으며,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 비축유 방출과 석유제품 수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세계 최대 유조선 운행사인 일본 해운사 MOL은 호르무즈 위기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연내 호르무즈 통항 재개도 어렵다고 밝힘
 - 일본 정부는 물류비 증가분 보조금과 호르무즈 해협 우회 송유관 금융지원으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0) Lloyd's List(2026.09.15.), <https://www.lloydslist.com/LL1158444/Japanese-crude-imports-exceed-2025-average-amid-Middle-East-turmoil>(2026.09.28. 검색)

3) 미주



1 미국 걸프 연안 신규 컨테이너터미널 건설 승인, 연간 200만 TEU 처리능력 확보 추진²¹⁾

- 미국 육군공병단은 뉴올리언스항이 신청한 루이지애나 국제터미널(LIT) 건설을 약 5년 만에 승인함**
 - 신규 터미널은 기존 뉴올리언스항에서 미시시피강 하류 방향으로 약 16마일 떨어진 곳에 조성되며, 기존 항만의 선박 수면상 높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계획됨
 - 터미널은 수심 55피트로 설계되어 최대 1만 6,000TEU급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완전 가동 시 연간 2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음
 - 이번 사업은 미국 걸프 연안에서 약 20년 만의 신규 컨테이너터미널 건설 사업임
- 사업 참여사와 뉴올리언스항은 터미널 건설 투자와 배후 도로 확충을 추진함**
 - 해운사 MSC의 터미널 투자회사인 터미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TIL)와 포츠 아메리카는 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뉴올리언스항은 준설 등 수중 공사를 중심으로 5억 달러를 투입함
 - 사업에는 연방 보조금과 주정부 자금 4억 8,000만 달러도 확보되었으며,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10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뉴올리언스항은 연방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신규 화물차 도로를 개발할 예정이며, 제3자와 협력하여 도로의 자금 조달·건설·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정부 승인을 받음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1) JOC(2026.08.17.), <https://www.joc.com/article/new-orleans-mega-terminal-receives-federal-approval-6270807>(2026.09.28. 검색)

2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브레이크벌크·프로젝트 화물 확대 위한 항만·내륙 수운 인프라 투자 추진²²⁾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브레이크벌크와 프로젝트 화물 확대를 위해 항만 및 연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함

- 노스캐롤라이나 항만당국은 3월 발표한 전략계획에서 철강, 목재제품, 고무, 프로젝트 화물 유치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
- 노스캐롤라이나 상공회의소 재단은 7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31년까지 브레이크벌크 화물 50만 톤 추가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항만당국의 올해 누적 처리량은 83만 톤을 넘어섬
- 재단은 특수화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터미널 접근성, 부지 조성, 인허가 효율성, 인력 확보와 함께 내륙 수로·바지선 터미널·보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주요 항만과 내륙 산업시설을 연결하는 수운망을 활용하여 화물 처리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 모어헤드시티항은 브레이크벌크와 특수화물에 주력하고 있으며, 월밍턴항은 브레이크벌크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 일반화물 출입구를 건설하고 있음
- 바지선 운영사 리버벌크는 모어헤드시티항에서 선박 화물을 바지선으로 직접 옮겨 약 150마일 내륙에 위치한 뉴코어 제철소로 운송하고 있음
- 리버벌크의 철강 운송 서비스는 미국 동부의 공공·민간 항만에서 고철을 수거하여 같은 제철소에 공급하며, 2022년 연방 해상고속도로 사업에 지정됨
- 재단은 바지선 시설을 철강뿐 아니라 풍력 기자재, 변압기, 건설자재 등 취급이 어려운 화물을 수용하는 사례로 제시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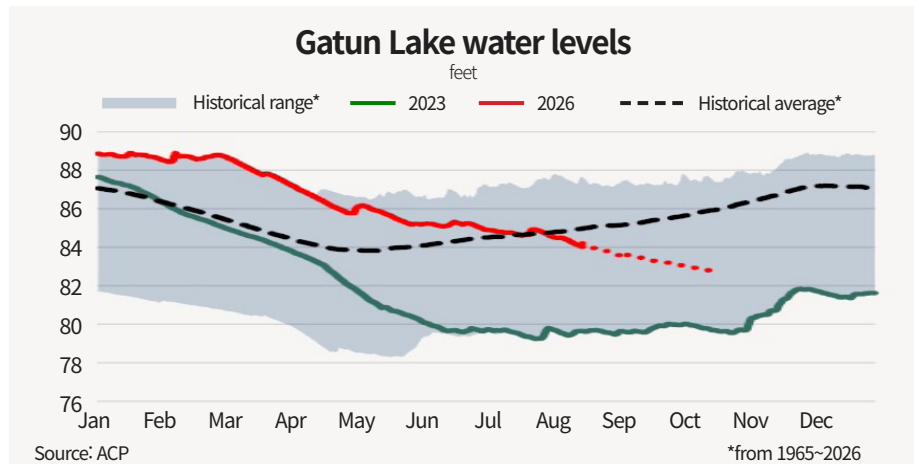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2) JOC(2026.08.20.), <https://www.joc.com/article/north-carolina-looks-to-inland-breakbulk-facilities-to-expand-maritime-sector-6273516>(2026.09.28. 검색)

3 파나마 운하, 가뭄 심화로 일일 통항 예약 축소 및 경매제도 개편²³⁾

- ▶ 파나마운하청은 강수량과 유역 유입량 부족에 대응하여 2026년 9월 15일부터 일일 통항 예약 규모를 32척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함
 - 9월 4일부터 네오파나막스급 9척과 파나막스급 25척의 예약을 제공하며, 9월 15일부터 파나막스급을 23척으로 줄임
 - 파나마 운하는 6월 흘수 제한을 재도입하고 7월 일일 예약 규모를 36척에서 34척으로 축소한 데 이어 추가 제한 계획을 발표함
 - 다만 최대 허용 흘수를 48피트로 낮추는 조치는 9월 2일로, 47.5피트로 낮추는 조치는 10월 1일로 연기함
- ▶ 통항권 확보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파나마운하청은 일부 경매의 선종별 그룹 구분과 대형 컨테이너선 우선권 적용을 추진함
 - 2026년 8월 초 통항권 경매가격은 평균 약 11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부 네오파나막스급 입찰가격은 수백만 달러에 달함
 - 일부 경매에서는 선종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며, 네오파나막스급 통항권 경쟁에서는 TEU 기준 적재능력이 큰 컨테이너선에 우선권을 부여함
 - 클락슨증권은 통항 제한과 우회 운항이 실질 선박 공급을 줄일 것으로 보고,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의 하루 운임 전망을 2026년 8만 1,250달러, 2027년 7만 달러로 각각 1만 5,000달러, 2만 달러 상향함

가톤호 수위 변화



자료: Splash 247(2026.08.21.), <https://splash247.com/panama-canal-cuts-daily-capacity/>(2026.09.28.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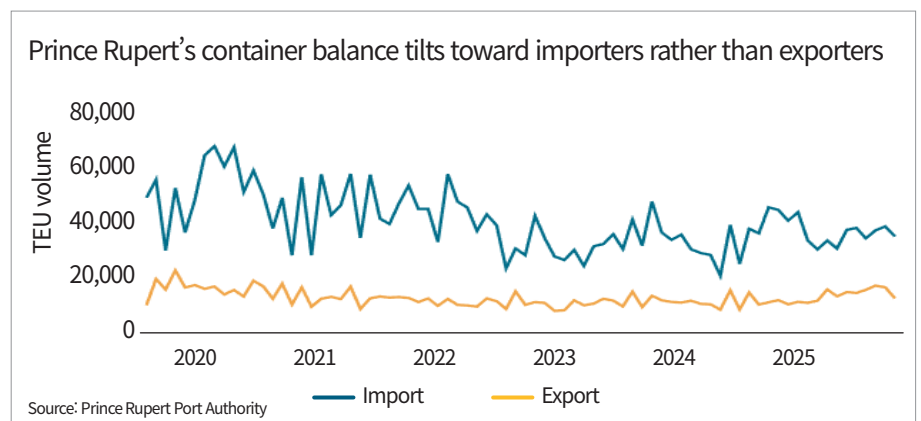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3) Splash 247(2026.08.21.), <https://splash247.com/panama-canal-cuts-daily-capacity/>(2026.09.28. 검색)

4 캐나다 프린스루퍼트항, 벌크화물 컨테이너 전환 시설 개장으로 수출 및 회항화물 확대 추진²⁴⁾

- 프린스루퍼트항은 벌크 수출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캔엑스포트(Canxport) 시설을 착공 3년 만에 개장함
 - 레이몬트로지스틱스,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CN, Canadian National Railway), 프린스루퍼트항만공사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리들리섬 115에이커 부지에 7억 5,0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함
 - 시설은 곡물 사일로와 농산물 저장시설, 벌크화물 적입 시설, 컨테이너·복합운송 야드, 철도 선로 3개를 갖추었으며, 레이몬트로지스틱스가 운영함
 - 초기 처리능력은 연간 40만 TEU이며 향후 75만 TEU까지 확대할 수 있고, 주요 취급 품목은 수지, 곡물, 광물, 목재, 펄프임
- 프린스루퍼트항은 수출 적재 컨테이너 확보를 통해 선사의 회항화물을 늘리고, 기존 터미널 활용도와 해외시장 연계를 높이하고자 함
 - 페어뷰 컨테이너터미널의 2025년 처리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88만 5,797TEU 였으나, 연간 처리능력(160만 TEU)과 2019년 실적(120만 TEU)에는 못 미침
 - 프린스루퍼트항의 수입 컨테이너 물량은 수출 적재 컨테이너의 약 3배이며, 항만당국은 선사 유치·유지를 위해 수출 적재화물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힘
 - 캐나다 연방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해외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프린스루퍼트항 컨테이너 수출입 추이



자료: JOC(2026.08.28.), <https://www.joc.com/article/prince-ruperts-big-bulk-to-container-transload-facility-debuts-6277911> (2026.09.28.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4) JOC(2026.08.28.), <https://www.joc.com/article/prince-ruperts-big-bulk-to-container-transload-facility-debuts-6277911> (2026.09.28. 검색)

4) 유럽



독일·네덜란드 항만 파업 속 아시아-유럽 항로 정시 운항률 한 자릿수로 하락²⁵⁾

1

- 2026년 8월 아시아-북유럽 노선의 정시 운항률은 전월(19%) 대비 대폭 하락한 6%를, 아시아-지중해 노선은 전월(14%) 대비 하락한 7%를 기록하며 모두 한 자릿수로 떨어짐
 - 정시성 악화는 아시아 주요 항만의 태풍 피해로 인한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의 계절적 수입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이며, 6월 유럽의 아시아발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 베르디(Verdi) 노조는 3차 단체교섭에서 社 측(ZDS)의 5.1% 임금 인상안이 불충분하다며 거부하고 48시간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파업 기간 중 함부르크 등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환적 작업이 전면 중단됨
 - 독일 파업 종료 직후 네덜란드 양대 노조 FNV 하번스(FNV Havens)·CNV도 정부의 65억 유로(Euro) 규모 사회보장 개혁안에 반대하여 로테르담·암스테르담·젤란드(Zeeland) 전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하루 파업을 시행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5) JOC(2026.09.03.), <https://www.joc.com/article/port-strikes-hit-europe-as-schedule-reliability-drops-to-single-digits-6281165>(2026.09.23. 검색)

2 예테보리항(Port of Gothenburg), 2026년 상반기 철도 물동량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²⁶⁾

-  스웨덴 예테보리항의 2026년 1~6월 컨테이너 처리량은 46만 2천 TEU로 사상 최대였던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함
 - 공컨테이너는 줄고 적재 컨테이너가 늘어 실제 화물량은 오히려 증가함
 - 성장을 이끈 주요 요인은 수입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이며, 스웨덴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직항 서비스를 운영하는 항만으로서 직항 서비스 컨테이너 비중도 뚜렷하게 증가함
 - 역내 유럽 로로(RoRo) 물동량은 27만 8천 유닛²⁷⁾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였으며, 중부 유럽 노선의 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예테보리항 전체 컨테이너의 60% 이상이 철도로 내륙에 운송되며, 2026년 연간 철도 물동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 2026년 상반기 철도를 통한 컨테이너 처리량은 26만 8천 TEU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함
 - 유럽 항만 혼잡이 심해지면서 환적 없이 예측 가능한 운송 경로를 선호하는 화주가 늘어, 직항 서비스의 경쟁 우위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6) Port Technology International(2026.08.28.),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ntermodal/port-of-gothenburg-rail-volumes-set-for-new-record-high/> (2026.09.23. 검색)

27) 유닛(unit): 로로(RoRo) 화물의 계량 단위로, 트레일러·차량 등 자력으로 선박에 오르내리는 화물 1대(개)를 의미

5) 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타우랑가항, 스텔라 패시지 선석 확장사업 조건부 승인²⁸⁾

■ 뉴질랜드 타우랑가항(Port of Tauranga)은 2026년 9월 7일 스텔라 패시지(Stella Passage) 개발사업이 패스트트랙 승인법(Fast-track Approvals Act 2024)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발표함

- 이 사업은 설퍼포인트(Sulphur Point) 컨테이너 선석을 2단계에 걸쳐 385m, 마운트마웅가누이(Mount Maunganui) 부두를 315m 연장하는 내용으로, 항만 내 기존 화물 야적지를 선석으로 전환해 추진됨
- 사업에는 신규 부두 배후 부지 매립과 스텔라 패시지 수로 준설도 포함됨
- 타우랑가항 최고재무책임자는 이 사업이 뉴질랜드의 장래 화물 증가를 뒷받침할 전략 인프라로, 국제 공급망의 복원력과 효율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힘
- 다만 이번 결정은 같은 법에 따른 항소 대상이며, 항만 측은 최종 결정문과 부가 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음

■ 설퍼포인트 컨테이너 선석은 수요 증가와 선박 대형화로 처리능력 한계에 거의 도달한 상태임²⁹⁾

- 1단계로 기존 컨테이너 선석(770m) 남쪽에 285m를 연장하면 연간 처리능력 한계가 기존 120만 TEU에서 약 200만 TEU로 확대될 전망이며, 나머지 100m는 수요에 따라 건설할 예정임
- 전체 완공 시 컨테이너터미널의 동시 접안 가능 선박은 기존 2척에서 3~4척으로 늘어날 전망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8) Port of Tauranga(2026.09.07.), <https://www.port-tauranga.co.nz/news/port-of-tauranga-wins-fast-track-approval-for-stella-passage-development/>(2026.09.25. 검색)

29) Port of Tauranga, Stella Passage development, <https://www.port-tauranga.co.nz/community/our-environment/stella-passage-development/>(2026.09.25. 검색)

6) 아프리카



1 그린로드, 모잠비크 마톨라 터미널 1,200만 톤으로 확대 추진³⁰⁾

-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물류기업 그린로드(Grindrod)는 2026년 9월 16일 모잠비크 마톨라(Matola) 터미널의 연간 처리능력을 2027년 상반기까지 730만 톤에서 1,200만 톤으로 늘리는 계획을 밝힘

 - 이번 계획은 RMB 빅파이브 투자자 콘퍼런스(RMB Big Five Investor Conference)에서 발표됐으며, 그린로드는 역내 수출 물량 증가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화물철도 개편이 추가 처리능력 확보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린로드는 2027년 하반기 마푸투항(Port of Maputo)을 준설해 케이프사이즈(Capesize)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또한 2028년에는 남아공 리처즈베이(Richards Bay)에 컨테이너 데포와 처리시설을 마련할 예정임
 - 마푸투항 물동량은 2026년 상반기 84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으며, 6월에는 월간 최대인 160만 톤을 처리함³¹⁾
- 남아공은 철도 개혁을 통해 인프라는 국가 소유로 두되 민간 운영사가 트랜스넷 화물철도(Transnet Freight Rail) 망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음

 - 그린로드는 마푸투로 이어지는 음푸말랑가(Mpumalanga)주 벨파스트-코마티포트(Belfast-Komatipoort) 철도 구간에서 2027년부터 초기 수송 가능 물량으로 40만 톤 규모를 확인했으나, 계약 물량인지는 밝히지 않음
 - 첫 민간 열차 운영사 11곳이 승인돼 2027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연간 최대 2,400만 톤의 화물 수송능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실제 수송 확대 규모는 철도망 접근과 운영사의 서비스 구축 역량에 좌우될 전망이다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0) BusinessDay(2026.09.17.), <https://www.businessday.co.za/companies/2026-09-17-grindrod-eyes-more-maputo-cargo-as-transnet-opens-network-to-private-operators/>(2026.09.25. 검색)

31) Freight News(2026.08.25.), <https://www.freightnews.co.za/article/record-maputo-volumes-boost-grindrod-performance>(2026.09.25.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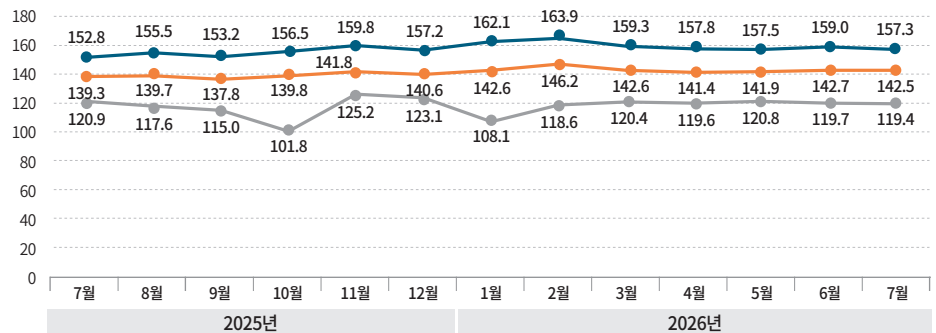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 지수

— Total
— China Index
— North Range Index

2026년 7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체·중국·북유럽 모두 전월 대비 소폭 하락

- 2026년 7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142.5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6월 159.0p에서 7월 157.3p로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 상승함
- 북유럽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나타내는 North Range Index는 6월 119.7p에서 7월 119.4p로 하락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9.3	139.7	137.8	139.8	141.8	140.6	142.6	146.2	142.6	141.4	141.9	142.7	142.5	-0.1	2.3
China Index	152.8	155.5	153.2	156.5	159.8	157.2	162.1	163.9	159.3	157.8	157.5	159.0	157.3	-1.0	3.0
North Range Index	120.9	117.6	115.0	101.8	125.2	123.1	108.1	118.6	120.4	119.6	120.8	119.7	119.4	-0.2	-1.2

주: 2015=100, Total 및 North Range Index는 계절 및 근무일 조정

자료: ISL(2026.08.28.), [https://www.isl.org/media/132\(2026.09.28. 검색\);](https://www.isl.org/media/132(2026.09.28. 검색);) [https://www.isl.org/media/133\(2026.09.28. 검색\);](https://www.isl.org/media/133(2026.09.28.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입 물가 하락과 수출기업 손익 감소 우려 확대³²⁾³³⁾

- 8월 국제유가 상승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기준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3.7%, 수입 물가는 2.4% 하락함
 - 8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8.75달러로 전월 대비 15.6% 상승했으나, 평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06.30원으로 6.1% 하락함
 - 수입 물가는 화학제품과 1차 금속 제품 등을 중심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환율 영향을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3.2% 상승함
 - 수출 물가는 화학제품 등 대부분 품목이 하락하며 2022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
-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달러 자산과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외환평가손실 및 세전 손익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SNT모티브의 세전 손익은 상반기 영업이익의 약 15%인 75억 4,000만 원, 파크시스템스는 상반기 세전이익의 약 52%인 4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달러 표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를 크게 웃도는 리노공업은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122억 9,000만 원의 외환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와이지원은 외화 매출채권과 외화차입금을 비슷한 규모로 보유하고, 외화자산 증가에 맞춰 외화부채와 수입 결제 대금도 증가하여 환율 영향을 상쇄함
- 8월 달러 기준 무역지수는 수출입 물량과 금액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며, 교역조건지수도 상승함
 -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9% 상승하여 10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수출금액 지수는 75.8% 상승함
 - 수입물량지수와 수입금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0%, 23.1% 상승함
 -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가격 상승률이 수입 가격 상승률을 웃돌면서 손상품교역 조건지수는 27.1%, 소득교역조건지수는 60.0% 상승하여 각각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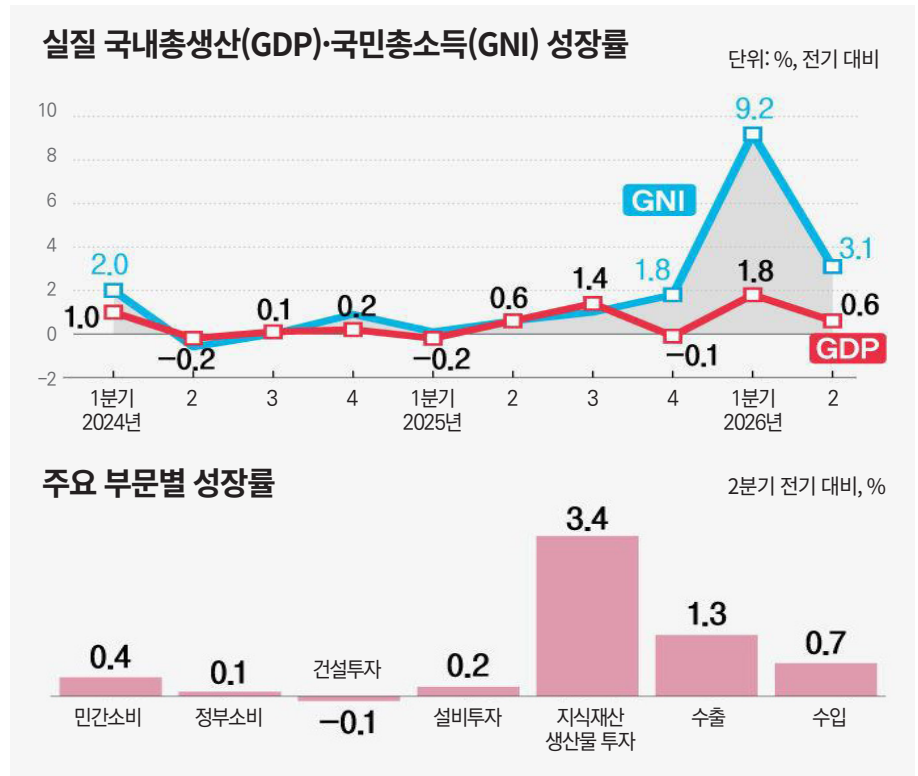
32) 한국경제(2026.09.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565721>(2026.09.28. 검색)

33) 노컷뉴스(2026.09.15.), https://www.nocutnews.co.kr/news/657803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915090004(2026.09.28. 검색)

3 2분기 실질 GDP 0.6% 성장, 명목 GDP 증가율 187분기 만에 최고³⁴⁾

-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으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함
- 명목 GDP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979년 3분기 27.7% 이후 187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8.8%, 실질 GNI는 전 분기 대비 3.1% 증가함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3.4% 증가함

실질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성장률 변화



자료: 뉴시스(2026.09.08.), https://www.newsis.com/view/NISI20260908_0002232787(2026.09.28.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4) 뉴시스(2026.09.08.), https://www.newsis.com/view/NISI20260908_0002232787(2026.09.28. 검색)

4 해상운임 동반 상승으로 해운사 실적 개선 전망과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확대³⁵⁾

-  연말 성수기 물동량 증가와 주요 해상 운송로·항만의 통행 차질이 겹치면서 컨테이너선·유조선·건화물선 운임이 동반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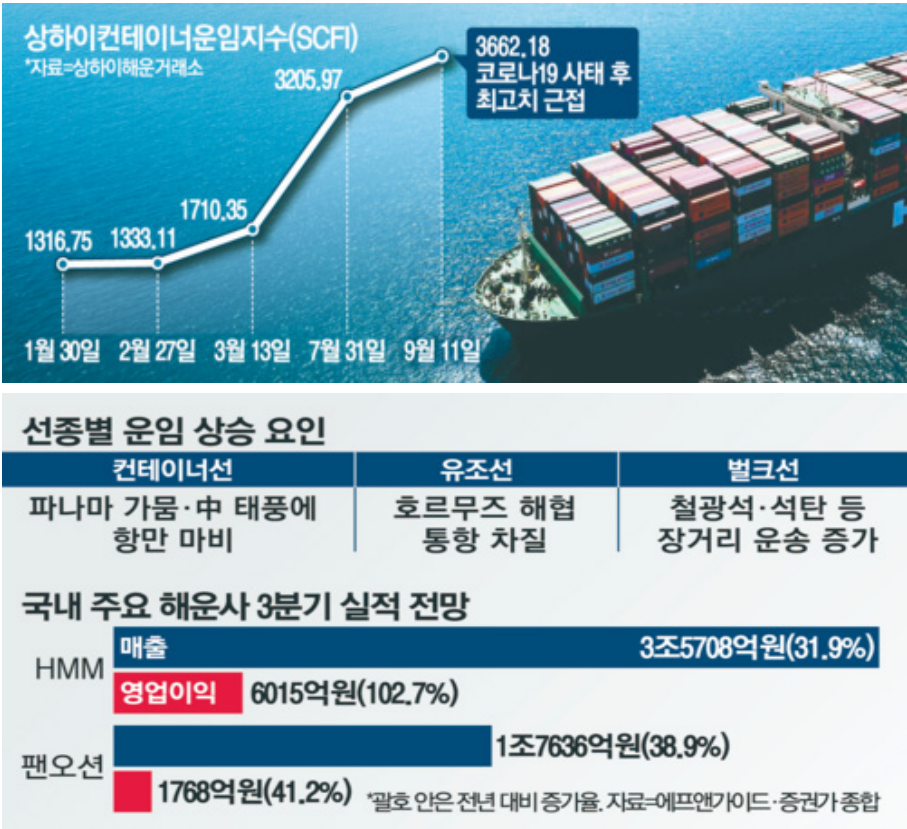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9월 11일 기준 3,662.18로 7주 연속 상승했으며, 파나마 운하 가뭄과 태풍에 따른 중국 주요 항만 운영 차질 등이 영향을 미침
 -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중동-중국 항로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의 하루 운임은 최대 80만 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짐
 -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는 9월 4일 기준 3,628로 전주 대비 13.9% 상승했으며, 철광석·석탄을 운송하는 케이프사이즈 대형선이 상승세를 주도함
-  운임 상승으로 국내 해운사의 3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업계는 향후 신규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과잉을 우려함

 -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HMM 6,015억 원, 팬오션 1,768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실적 2,968억 원과 1,252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
 - 컨테이너선 신조 인도량은 2027년 265만 TEU, 2028년 340만 TEU로 전망됨
 - 해운업계는 홍해·수에즈 운하 정상화 시 선박 공급과잉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운임 강세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수출기업은 운임 상승으로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단기 운송계약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확대됨

 - 한국무역협회 조사에서 수출 제조기업 219개사 중 83.1%인 182개사가 상반기 최대 물류 애로로 운임 상승을 지목했으며, 응답 기업의 32.9%는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함
 - 한국무역협회는 삼성SDS와 협력하여 해상·항공 운임 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수출 중소기업에 해상·내륙 운송비의 70%를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함

35) 매일경제(2026.09.15.),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53676>(2026.09.28. 검색)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와
선종별 운임 상승 요인



자료: 매일경제(2026.09.15.), <https://www.mk.co.kr/news/business/12153676>(2026.09.28.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 중국 닝보·저우산항, 싱가포르 제치고 세계 2위 컨테이너 항만 등극³⁶⁾

- 알파라이너의 2026년 상반기 항만 순위에서 닝보·저우산항이 싱가포르항을 제치고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 2위에 오름
 - 닝보·저우산항의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하여 싱가포르항의 증가율 4.7%를 웃돌았으며, 처리량 격차는 15만 8,310TEU임
 - 상하이항은 상반기 2,870만 TEU 이상을 처리하여 1위를 유지했으며, 선전항·칭다오항·광저우항·텐진항도 상위 10위권에 포함됨
 - 텐진항은 부산항보다 약 40만 TEU 많은 물량을 처리하여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기록함
-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일부 중동 항만의 처리량과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미국 주요 항만의 순위 변동은 제한적이었음
 - 두바이 제벨알리항은 상위 30위 밖인 32위로 하락했으며, 아부다비 칼리파항은 기존 32위에서 50위 밖으로 밀려남
 -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합산 기준 상반기 약 1,000만 TEU를 처리하여 9위를 유지했으며, 뉴욕·뉴저지항은 440만 TEU로 한 단계 하락한 22위를 기록함
 - 알파라이너는 중동 분쟁에 따른 선사들의 운항망 조정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화주의 대응이 세계 컨테이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6) The Maritime Executive(2026.08.26.),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ningbo-zhoushan-tops-singapore-as-world-s-second-busiest-container-port>(2026.09.28. 검색)

2) 양곡



1 2026년 8월 CBOT 곡물 가격, 밀·대두·옥수수 2개월 연속 동반 상승

-  2026년 8월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기준 밀·대두·옥수수 가격은 2개월 연속 모두 전월보다 올랐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세 품목 모두 상승함

 - 옥수수는 세 품목 중 전월 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전월보다 크게 확대됨
 - 밀은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상승하며 세 품목 중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짐
 - 대두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2개월 연속 최근 1년 중 최고 가격을 기록함
 - 세 품목 모두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을 형성함
 - 미국 농무부(USDA)가 8월 수급 전망에서 중서부 지역의 7월 폭염·가뭄 피해를 반영해 옥수수·대두 단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공급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곡물 가격 전반의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  밀 가격은 248달러/톤으로 전월(238달러/톤) 대비 4.4%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32.9% 상승한 수준임

 -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최근 1년 중 최고가를 다시 경신함
 -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전월(20.0%)보다 크게 확대되며 세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대두 가격은 441달러/톤으로 전월(440달러/톤) 대비 0.2%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2% 상승한 수준임

 - 전월 대비 사실상 보합 수준이나, 전월에 이어 최근 1년 중 최고가를 소폭 경신함
 -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은 전월(18.6%)보다 소폭 확대됨
-  옥수수 가격은 185달러/톤으로 전월(175달러/톤) 대비 5.6%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3%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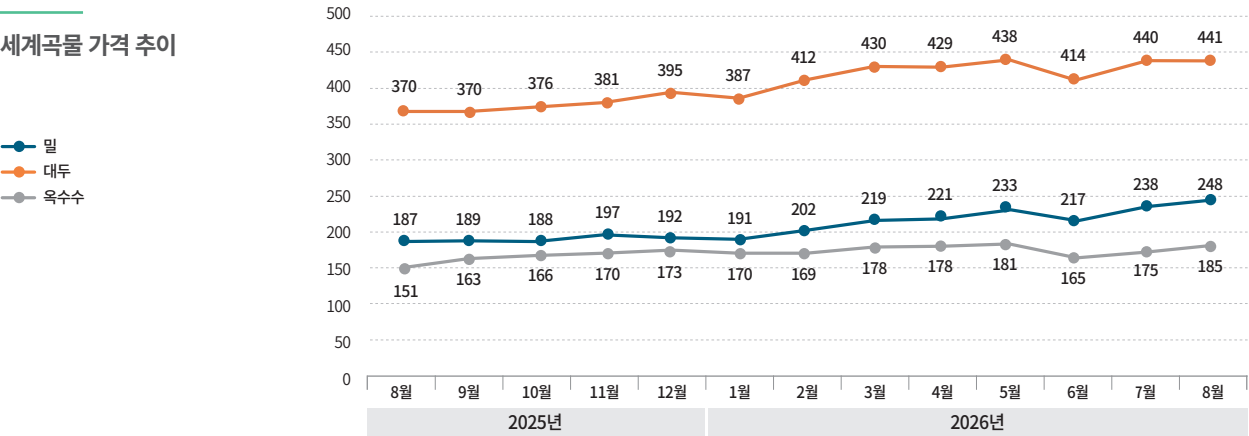
 - 2개월 연속 상승하며 5월 고점(181달러/톤)을 넘어 최근 1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함

세계곡물 가격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187	189	188	197	192	191	202	219	221	233	217	238	248	4.4	32.9
대두	370	370	376	381	395	387	412	430	429	438	414	440	441	0.2	19.2
옥수수	151	163	166	170	173	170	169	178	178	181	165	175	185	5.6	22.3

(단위: 달러/톤)

세계곡물 가격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https://www.krei.re.kr/grain/page/242>(검색일: 2026.09.29.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흑해 긴장·미국 고온에 국제곡물 가격 재상승 전망³⁷⁾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국제곡물 9월호」에서 2026년 3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 지수가 전 분기 대비 6.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흑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 미국 중서부 고온에 따른 작황 불확실성,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 등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힘
 - 식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전 분기 대비 0.2%,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0.9%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곡물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곡물 도입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연구원은 국제곡물 생산량과 수출 여건, 흑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 미국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함
-  밀은 흑해 지역 곡물 수출 차질 우려로 8월 선물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세계 소비량이 생산량을 웃돌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며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
 - 다만 러시아의 수출 가능 물량과 주요 생산국의 공급 여건은 상승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 밀 생산량은 8억 1,664만 톤, 소비량은 8억 1,876만 톤으로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12만 톤 웃돌 것으로 전망됨
 - 세계 밀 수출량은 2억 1,506만 톤,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2억 7,267만 톤으로 관측됨
-  옥수수는 미국 중서부 고온에 따른 작황 우려와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 지속으로 8월 선물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함

 -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13억 4,112만 톤, 소비량은 13억 1,709만 톤으로 전망됨
 - 수출량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2억 1,178만 톤, 기말재고량은 6.8% 감소한 2억 8,896만 톤으로 관측됨
 -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생산·소비 변화가 향후 가격 흐름의 변수가 될 전망임

37) 헤럴드경제(2026.09.0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2363>(검색일: 2026.09.29. 검색)

-  대두는 8월 선물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세계 소비량이 생산량을 웃돌면서 기말 재고가 줄어듦 것으로 전망됨
-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4억 4,235만 톤으로 전망됨
 - 소비량 역시 전년 대비 2.9% 증가한 4억 4,608만 톤으로 생산량을 약 373만 톤 웃돌 것으로 예상됨
 -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7,208만 톤으로 관측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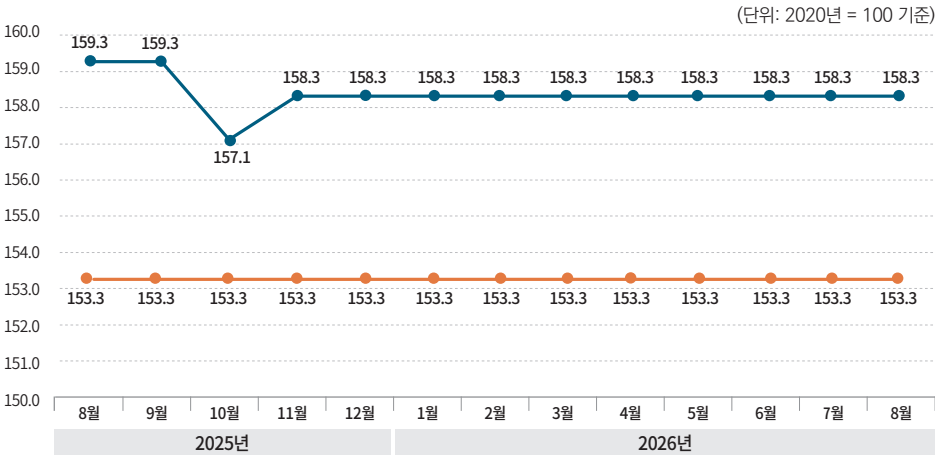


1 2026년 8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 2026년 8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고로슬래그 시멘트 모두 전월 대비 변동 없이 보합세를 이어감
- 포틀랜드 시멘트는 158.3으로 전월과 같았으며, 전년 동월(159.3) 대비로는 0.6% 하락함
 -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153.3으로 전월과 같았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2025년 10월 157.1까지 하락한 뒤 11월 158.3으로 반등해 이후 10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조사 기간 내내 153.3으로 안정세를 지속함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59.3	159.3	157.1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0.0	-0.6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9.29. 검색\)](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9.29. 검색))

2 시멘트·레미콘·건설업계, 탄소 저감 위한 통합기술 심포지엄 개최³⁸⁾

-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026년 9월 10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시멘트·레미콘·건설산업 통합기술 심포지엄」을 열고, 연관 산업의 탄소 저감 기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주관함
-  시멘트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혼합재 사용을 늘리는 고성능 클링커 제조 기술이 소개됨
 - 클링커 1톤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약 0.89톤이 발생하며, 시멘트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클링커 투입량을 줄이면 콘크리트의 초기 수화성이 떨어져 강도가 약해지는 한계가 있음
 - 한일시멘트는 초기 수화성을 높이는 규산삼칼슘(C_3S)을 활용하면 혼합재 사용량을 기존 10% 수준에서 25%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함
 - 석회석 미분말, 플라이애시 등 기존 혼합재를 그대로 쓰면서도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클링커 생산·사용량 감축을 통한 탄소 저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  레미콘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믹서트럭 회수수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기술을 추진함
 - 아주산업 연구소장은 믹서트럭 내부 잔여물 등을 세척한 회수수의 재활용 비율을 확대해 탄소를 저감하는 전략을 발표함
 - 인공지능으로 회수수의 알칼리도, 탁도 등 데이터를 수집해 품질 점수를 산출하고, 품질에 따라 배합비를 보정하는 방식임
 - 이를 통해 회수수 재활용률을 높여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8) 대한경제(2026.09.11.),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9101331564600465>(2026.09.29.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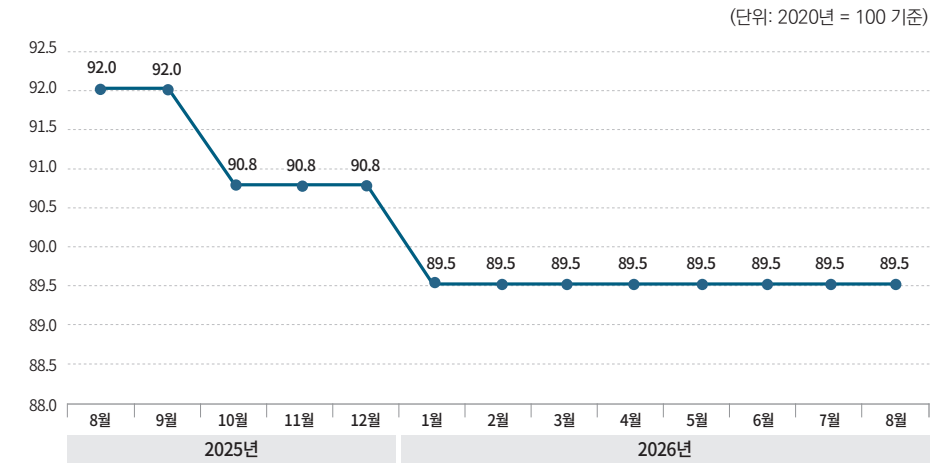
4) 모래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026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한 89.5 기록

- 2026년 8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89.5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7% 하락함
 - 2026년 1월 이후 8개월 연속 89.5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2025년 6월(95.8) 이후 이어진 하락세는 2026년 1월부터 멈추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 하락하며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이며 약세 흐름이 다소 완화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92.0	92.0	90.8	90.8	90.8	89.5	89.5	89.5	89.5	89.5	89.5	89.5	89.5	0.0	-2.7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9.29.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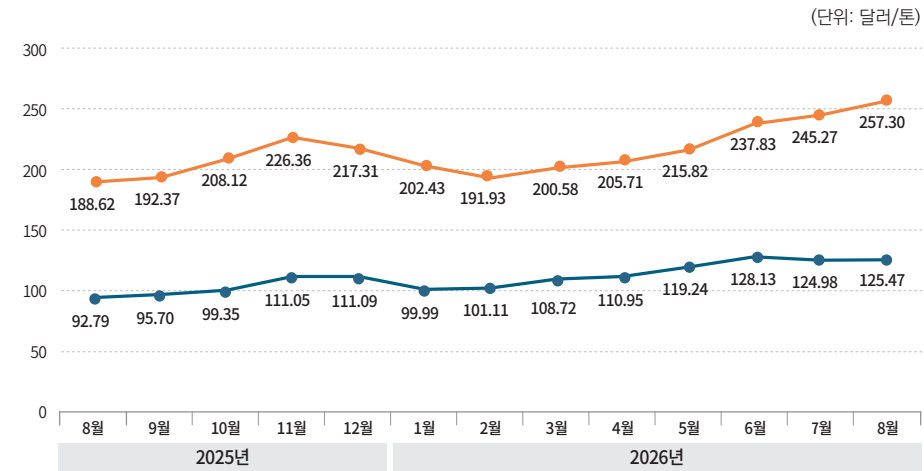


1 2026년 8월 석탄 가격, 연료탄 반등·점결탄 6개월 연속 상승

- 2026년 8월 연료탄 가격은 전월 대비 0.4% 상승한 톤당 125.47달러, 점결탄 가격은 전월 대비 4.9% 상승한 톤당 257.30달러를 기록함
 - 연료탄은 2026년 6월 128.13달러/톤 고점 이후 7월 하락했으나 8월 소폭 반등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35.2% 상승함
 - 점결탄은 2026년 2월 191.93달러/톤 저점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해 2025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6.4% 상승함

석탄 가격 추이

연료탄(Thermal)
점결탄(Coking)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연료탄	92.79	95.70	99.35	111.05	111.09	99.99	101.11	108.72	110.95	119.24	128.13	124.98	125.47	0.4	35.2
점결탄	188.62	192.37	208.12	226.36	217.31	202.43	191.93	200.58	205.71	215.82	237.83	245.27	257.30	4.9	36.4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9.25.검색\)](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9.25.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 토론회, 석탄 발전 60기 2040년 전면 폐지안 제시³⁹⁾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2026년 9월 18일 개최한 제7차 공개 토론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 60기 전부를 2040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이 발제됨
 - 국내 석탄발전은 민간 8기를 포함한 총 60기이며, 2025년 발전량은 170.8TWh로 전체 발전량의 28.7%를 차지함
 - 발제안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39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27기는 LNG 발전으로, 12기는 양수발전으로 대체하는 경로를 담음
 -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은 21기(발전 용량 19.1GW)는 원칙적으로 조기 폐지 대상이며, 2037~2039년에 나누어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됨
- 정부는 조기폐지를 유도할 지원책과 함께 비상시에 활용할 안보 전원 지정 방안도 검토함
 - 조기폐지 대상 가운데 최대 10기는 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비한 안보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주기적 가동이 필요한 발전기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탄소 배출 저감 수단 적용을 전제로 함
 - 조기폐지 발전사업자에게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등 신규 발전사업 입찰 시 우대를 주고, 지역 수용성을 전제로 소형모듈원자로 전환도 검토하기로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 발전의 구체적인 폐지 로드맵을 반영할 계획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9) 머니투데이(2026.09.18.), <https://www.mt.co.kr/economy/2026/09/18/2026091811263944561>(2026.09.2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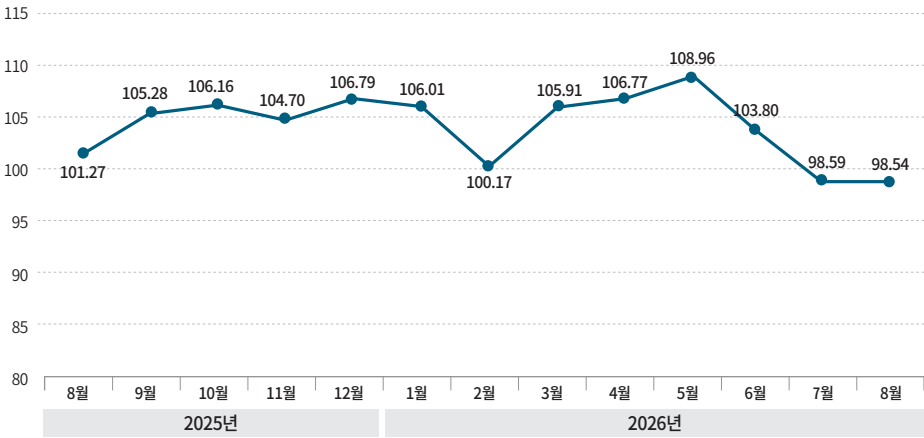
6) 철광석



철광석 가격 추이

1 2026년 8월 철광석 가격, 소폭 하락하며 석 달 연속 내림세

- 2026년 8월 철광석 가격(호주산 62%, 중국 CNF)은 전월 대비 0.1% 소폭 하락한 톤당 98.54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2.7% 감소함
- 2026년 5월 톤당 108.96달러를 기록한 뒤 석 달 연속 하락해 2025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0달러 선을 밑돌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01.27	105.28	106.16	104.70	106.79	106.01	100.17	105.91	106.77	108.96	103.80	98.59	98.54	-0.1	-2.7

주: 62% 분광 중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9.25](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9.25)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중국강철공업협회, 2030년 자국 철광석 자원 기여율 26% 목표 제시⁴⁰⁾

-  중국강철공업협회 회장은 2026년 9월 20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15회 중국국제 철강대회에서 2030년까지 자국 철광석 자원 기여율을 26%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함
 - 협회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누적 1억 톤 이상 감축했으며, 상위 10개 철강사 집중도는 2025년 43.1%로 2020년 대비 4.2%p 높아진 것으로 추산함
 -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 중국 내 연간 철강 수요는 8억 톤 이상을 유지하겠으나, 이후 등락을 거치며 점차 감소하여 2035년에는 8억 톤을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중국 철강업계는 생산능력 확장 억제, 산업 집중도 제고, 자원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임
 - 2030년까지 상위 10개 철강사 집중도를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기로 기반 생산 비중은 전체 철강 생산의 20%에 이를 전망이다
 - 자원 부문에서는 해외 중국계 지분 광산의 비중을 13%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협회는 2025~2027년 세계 철강 생산능력이 1억 6,500만 톤(6.7%) 늘어나 세계 철강시장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40) SteelOrbis(2026.09.22.), <https://www.steelorbis.com/steel-news/latest-news/cisa-chinese-steel-demand-to-remain-above-800-million-mt-during-2026-30-1479086.htm> (2026.09.2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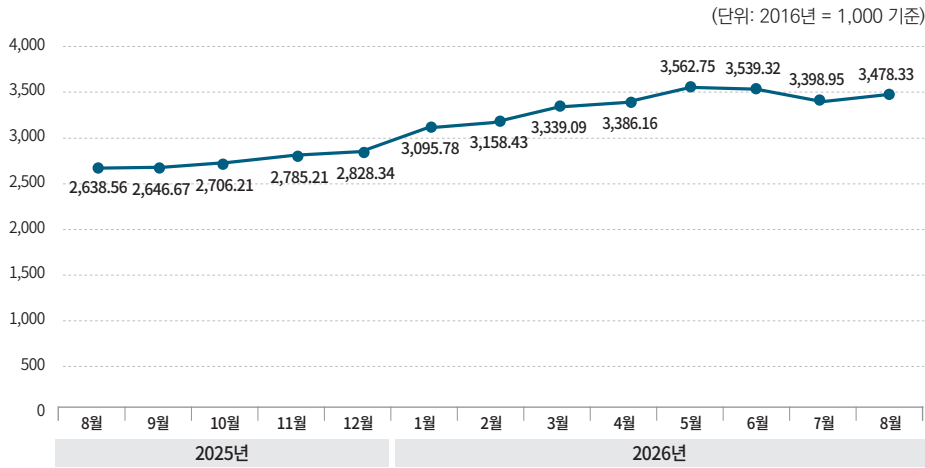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2026년 8월 광물종합지수, 두 달 연속 하락 뒤 2.3% 반등

- 2026년 8월 광물종합지수는 3,478.33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1.8% 상승함
 - 2026년 5월 3,562.7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6~7월 두 달 연속 하락하였으나 8월 들어 반등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은 전월보다 축소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638.56	2,646.67	2,706.21	2,785.21	2,828.34	3,095.78	3,158.43	3,339.09	3,386.16	3,562.75	3,539.32	3,398.95	3,478.33	2.3	31.8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6.09.25.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6.09.25.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산업통상부, 핵심광물 51종으로 확대하고 최대 365일본 비축 추진⁴¹⁾

-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23일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함
 - 기본계획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2025년 2월) 이후 처음 수립한 범정부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으로,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과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 핵심광물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되며, 신규 13종인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은 고시 개정을 거쳐 지정될 예정임
 - 신규 광물은 첨단산업 필수 원료라는 점에서 선정됐으며, 인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양극재·반도체 식각용 인산, 형석은 반도체용 무수불산·이차전지 전해액, 게르마늄은 방산용 열영상장비·통신용 광섬유에 쓰임
 - 정부는 핵심광물 지정으로 공급망 관리 범위를 넓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26~203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은 비축 품목과 목표를 늘리고 국가 비축 기반을 넓히는 내용을 담음
 - 구체적으로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높여 광종별로 비축 일수를 차등 관리하는 내용임
 - 비축 형태도 첨단산업 수요와 국내 정·제련 기반을 고려해 고순도 금속, 산화물, 수산화물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임
 - 아울러 공공 비축에 민간 등록재고, 재자원화 원료, 해외 재고접근권 등을 합친 ‘국가충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해 위기 시 국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방침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9.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3054\(2026.09.25. 검색\)](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3054(2026.09.25. 검색))

8) 목재



1 2026년 1-8월 국내 목재 주요 품목 수입 동향

- 2026년 1-8월 국내 목재 수입은 주요 품목 전반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원목(94만 9천 m³, -3.9%)과 합판(85만 3천 m³, +0.1%)은 감소폭이 완화되거나 보합세로 전환된 반면, 제재목(91만 5천 m³, -8.7%)과 성형목재(3만 6,282톤, -27.5%)는 감소세를 이어감
 - 파티클보드는 68만 2천 m³로 전년 동기(80만 1천 m³) 대비 14.9%, 섬유판은 10만 9천 m³로 18.0% 각각 감소하며 가공용 목재 품목의 수입 위축이 지속됨
 - 목재펠릿은 202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263만 4천 톤) 대비 23.2% 감소하며 에너지용 목재 수입도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6년 누적(1-8월)	2025년 누적(1-8월)	증감률(%)
원목(천m ³)	949	988	-3.9
제재목(천m ³)	915	1,002	-8.7
성형목재(톤)	36,282	50,051	-27.5
합판(천m ³)	853	852	+0.1
파티클보드(천m ³)	682	801	-14.9
섬유판(천m ³)	109	133	-18.0
목재펠릿(천 톤)	2,024	2,634	-23.2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6.09.22.),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20443&bb-sl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ld=&mn=AR01_04_02_03&component=\(2026.09.27. 검색\)](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20443&bb-sl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ld=&mn=AR01_04_02_03&component=(2026.09.27.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미국 목재 선물 가격, 9월 들어 9개월 만에 최저치⁴²⁾

- 2026년 9월 25일 기준 미국 목재 선물 가격은 1,000보드피트(board feet)당 538달러로 전월 대비 5.03%, 전년 동월 대비 9.43% 하락하였으며, 2025년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함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어 2025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위축되고 목재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함
 - 8월 단독주택 착공 건수는 7.6% 증가하였으나, 건축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2.7% 감소하며 수요 회복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미-캐나다 목재 무역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캐나다는 미국산 목재에 25%, 합판에 50%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12개월 내 목재 가격은 500달러 수준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2) Trading Economics(2026.09.25.), <https://tradingeconomics.com/commodity/lumber>(2026.09.2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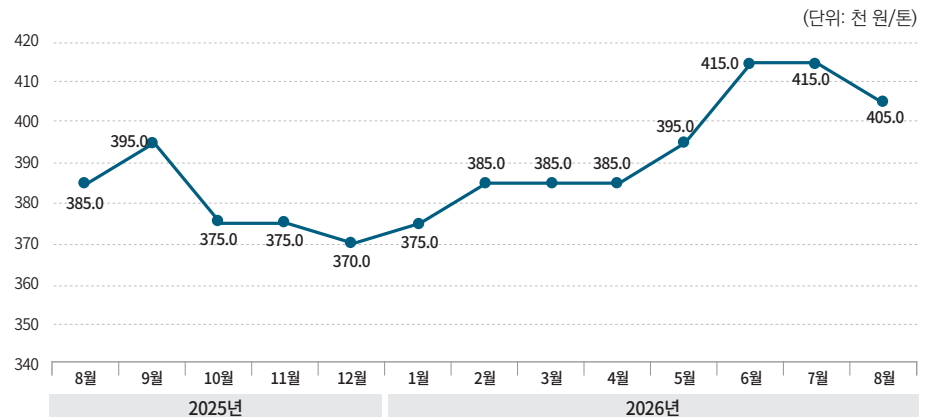
9) 고철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2026년 8월 국내 고철(생철) 가격, 전월 대비 하락 전환

- 2026년 8월 국내 고철(생철) 가격은 405천 원/톤으로 전월(415천 원/톤) 대비 10천 원/톤(-2.4%) 하락하며 2개월 만에 하락 전환됨
- 전년 동월(2025년 8월, 385천 원/톤) 대비로는 20천 원/톤(+5.2%)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흐름은 유지하고 있음
- 2026년 5월 395천 원, 6~7월 415천 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8월 들어 405천 원으로 하락하며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냄
- 국내 철스크랩 수급 압박이 일부 완화되고 국제 철스크랩 가격도 미국·이란 종전 합의 이후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국내 가격도 동반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6.08.27.),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9.27. 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9.27.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원화 강세·해상운임 급등으로 STS 스크랩 수출 사실상 중단⁴³⁾

-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6년 8월 STS 스크랩⁴⁴⁾ 수출량은 5,428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8% 급감해 1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9월에는 수출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됨
 - 원·달러 환율이 6월 초 달러당 1,558원대(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에서 9월 1,340원대로 약 14% 하락하며 수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됨
 - STS 스크랩 수출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인도항 20피트 컨테이너 해상운임은 상반기 800~900달러에서 8월 2,400달러, 9월 3,000달러 수준으로 급등해 운반비가 kg당 205원에 달하면서 수출 수익성이 사라짐
-  국내 STS 스크랩 월평균 발생량 약 6만 톤 중 수출 물량(약 2만 톤, 33%)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수급이 완화되고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수출이 활발했던 2026년 4~7월 포스코 STS 스크랩 구매 단가는 4개월 연속 인상됐으나, 수출이 급감한 8월에는 kg당 60원 하락하고 9월에도 70원 추가 하락해 2023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3) 스크랩워치(2026.09.28.), <https://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42>(2026.09.28. 검색)

44) STS 스크랩(STS Scrap):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STS) 제조 과정이나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테인리스 고철로, 니켈·크롬 등 고가 합금 원소가 포함되어 일반 철스 크랩과 별도로 거래되며 주요 수출 품목임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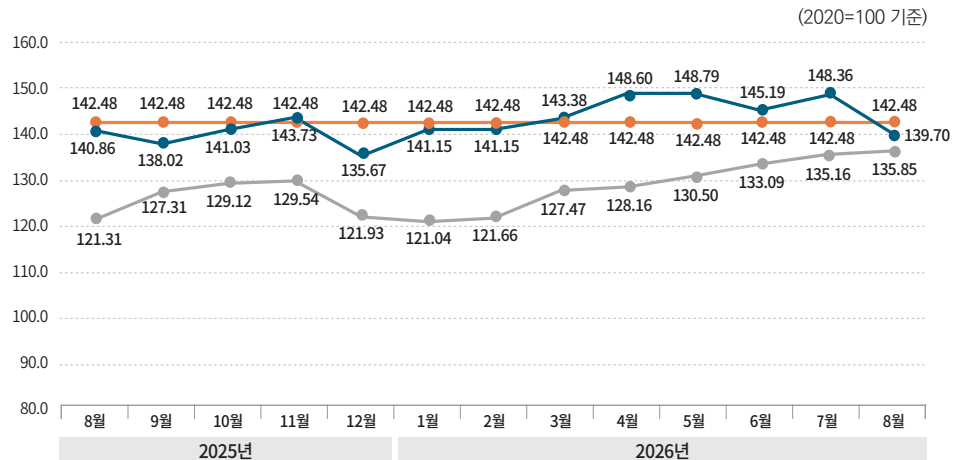


1 2026년 8월 국내 철강 반제품(선철·슬래브·빌렛) 생산자 물가지수, 슬래브 하락 전환, 빌렛 상승세 유지

- 2026년 8월 국내 주요 철강 반제품(선철·슬래브·빌렛) 생산자 물가지수는 슬래브가 하락 전환한 반면 빌렛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품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냄
 - 선철은 2026년 8월에도 142.48을 유지하며 전월·전년 동월 대비 모두 변동이 없었으며, 장기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 슬래브는 2026년 8월 139.70으로 전월(148.36) 대비 5.8%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140.86) 대비로도 0.8% 하락으로 전환됨
 - 빌렛은 2026년 8월 135.85로 전월(135.16) 대비 0.5%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121.31) 대비로는 12.0% 상승하며 세 품목 중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슬래브의 전월 대비 하락 전환에도 불구하고 빌렛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반제품 시장 내 품목별 온도 차가 지속되고 있음
 - 빌렛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12.0%)이 7월(+10.7%) 대비 확대되며 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는 흐름임

선철, 슬래브 및 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선철
— 슬래브
— 빌렛



03 품목 및 산업 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선철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0.0	0.0
슬래브	140.86	138.02	141.03	143.73	135.67	141.15	141.15	143.38	148.60	148.79	145.19	148.36	139.70	-5.8	-0.8
빌렛	121.31	127.31	129.12	129.54	121.93	121.04	121.66	127.47	128.16	130.50	133.09	135.16	135.85	0.5	12.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9.27. 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9.27.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세계철강협회, 2026년 8월 글로벌 조강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 발표⁴⁵⁾

-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2026년 8월 전 세계 70개국 조강 생산량은 1억 4,420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2026년 8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12억 2천만 톤을 기록함
- 아시아·오세아니아는 1억 670만 톤(-1.4%)으로 감소한 반면, 북미는 940만 톤(+3.9%), 아프리카는 210만 톤(+8.8%)으로 증가하였으며, 중동(-4.6%)·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우크라이나(-5.6%)·남미(-4.9%)는 감소함
 - 주요 생산국 별로는 중국이 7,460만 톤(-3.7%)으로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인도(1,480만 톤, +4.6%), 미국(730만 톤, +3.0%), 한국(540만 톤, +2.6%), 베트남(270만 톤, +36.4%)은 증가하였으며, 튀르키예(340만 톤, -0.4%)·러시아(550만 톤, -0.3%)는 소폭 감소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5) 세계철강협회(worldsteel)(2026.09.24.), <https://worldsteel.org/media/press-releases/2026/august-2026-crude-steel-production/>(2026.09.2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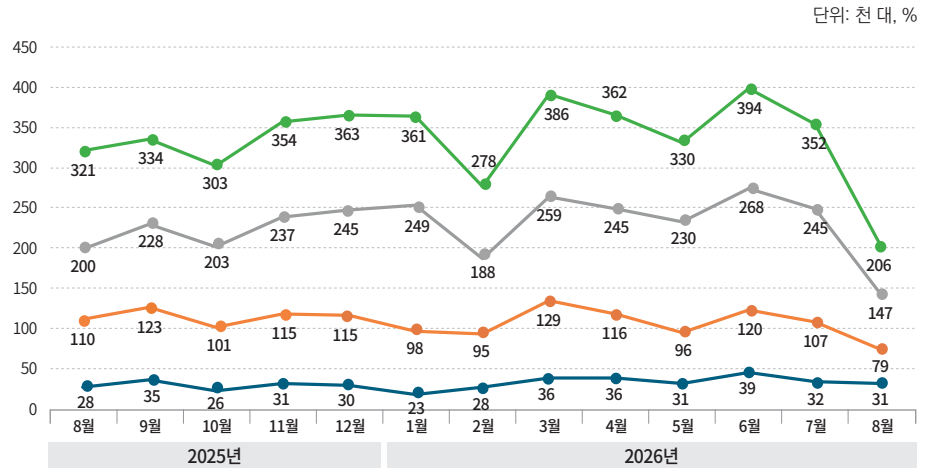
11) 자동차



월별 자동차산업 통계

- 국산차 판매
- 수입차 판매
- 수출
- 생산

2026년 8월 자동차산업, 하계휴가와 생산 차질로 내수·수출·생산 감소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국산차 판매	110	123	101	115	115	98	95	129	116	96	120	107	79	-26.3	-28.5
수입차 판매	28	35	26	31	30	23	28	36	36	31	39	32	31	-3.8	9.0
수출	200	228	203	237	245	249	188	259	245	230	268	245	147	-40.1	-26.6
국내 생산	321	334	303	354	363	361	278	386	362	330	394	352	206	-41.5	-35.8

주: 월간 확정치를 취합하여 재작성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6.09.1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92&menunum=0004(2026.09.28. 검색)

8월 내수는 전월 대비 21.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0.8% 감소한 109,915대를 기록함

- 하계휴가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일부 업체 파업,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국산차 판매가 감소했으나, 테슬라·BYD 등 수입 전기차 판매 증가가 감소폭을 일부 완화함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68,876대로 전체 내수의 62.7%를 차지함
- 하이브리드차(HEV)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6% 감소한 반면, 전기차(EV)는 27.7% 증가했으며, 국산 전기차는 18.0% 증가한 15,911대, 수입 전기차는 39.9% 증가한 15,183대를 기록함

- 

8월 수출은 전월 대비 40.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한 146,989대를 기록함

 - 하계휴가 시점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주요 업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겹치며 자동차 수출이 감소함
 -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3% 감소한 58,187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9.6%를 차지함
 - 기아·KG모빌리티·르노코리아의 친환경차 수출은 증가했으나, 현대의 생산 차질 영향으로 전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출은 모두 감소함
- 

8월 생산은 전월 대비 41.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5.8% 감소한 206,036대를 기록함

 - 일부 업체의 주력 차종과 신차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계휴가와 주요 업체 파업으로 생산 공백이 확대됨
 - 업체별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현대 54.8% 감소, 기아 19.6% 감소, 한국지엠 13.0% 증가, KG모빌리티 29.3% 감소, 르노코리아 61.8% 감소함

단위 : 대, 백만 \$, %

2026년 8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률		
	연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1~8월 대비
내수	1,680,110	138,824	1,103,955	139,231	109,915	1,096,735	-21.1	-20.8	-0.7
(국산차)	1,355,296	110,352	900,524	106,953	78,876	839,864	-26.3	-28.5	-6.7
(수입차)	324,814	28,472	203,431	32,278	31,039	256,871	-3.8	9.0	26.3
OEM 수입	17,925	1,197	11,302	1,311	1,236	12,205	-5.7	3.3	8.0
수출	2,736,109	200,304	1,823,660	245,313	146,989	1,833,592	-40.1	-26.6	0.5
(완성차 수출액)	71,975	5,489	47,667	6,238	3,851	46,013	-38.3	-29.8	-3.5
(부품 수출액)	21,075	1,661	14,273	1,951	1,497	13,475	-23.2	-9.9	-5.6
생산	4,102,200	320,942	2,748,324	351,973	206,036	2,668,913	-41.5	-35.8	-2.9

주: 수입차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승용차 등록통계와 국내 제조사의 해외공장산 수입판매(OEM수입)를 합산한 수치이며, 수출액은 관세청 수출입통계(MTI 741, MTI 742)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6.09.1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92&menunum=0004\(2026.09.28.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92&menunum=0004(2026.09.28.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중국 자동차 수출 증가로 자동차운반선 부족 심화와 대체 운송 확대⁴⁶⁾

-  중국 자동차 수출이 선박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동차운반선 부족이 심화되고 용선료가 상승함
 - 중국의 2026년 1~8월 승용차 수출은 620만 대 이상으로 2025년 연간 수출량 약 600만 대를 넘어섰으며,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1% 증가한 약 89만 대를 기록함
 - 업계는 중국발 운송 수요에 비해 자동차운반선 공급이 7,000CEU급 기준 약 74척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며, CEU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선박 적재능력을 환산하는 단위임
 - 6,500CEU급 자동차운반선의 1년 계약 기준 하루 용선료는 8월 8만 달러로 2025년 말 대비 88% 상승함
-  자동차운반선 부족으로 컨테이너 등 대체 운송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완성차 업체는 자체 운송능력 확보를 추진함
 - 해운업계는 2026년 상반기 약 100만~150만 대의 자동차가 컨테이너 등 대체 수단으로 운송된 것으로 추산함
 - BYD는 선박 부족이 해외 판매량을 제한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자동차운반선 8척을 운영하는 가운데 자체 선박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현대글로비스는 중국 완성차 업체 등 비계열 물량 확대에 따라 해운사업 매출이 증가했으며, 자동차운반선 선대를 확대할 계획임
 - 2025년 완성차 해상운송 매출의 비계열 물량 비중은 53%이며, 2026년 2분기 해운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한 1조 6,441억 원을 기록함
 - 현대글로비스는 6,500CEU급 환산 기준 자동차운반선 선복을 2026년 2분기 말 98척에서 2026년 말 약 110척, 2027년 말 약 120척으로 확대할 계획임
 - 또한, 2030년까지 자동차운반선 선대를 128척으로 늘리고, 연간 완성차 해상운송 물량을 현재 340만 대에서 500만 대로 확대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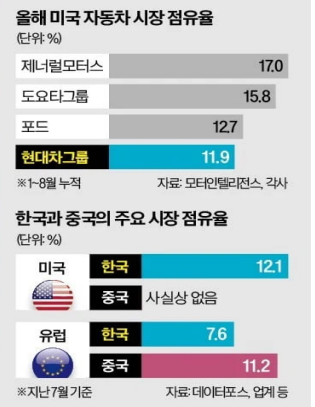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6) 머니투데이(2026.09.14.), <https://www.mt.co.kr/industry/2026/09/14/2026091413082386978>(2026.09.28. 검색)

3 중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현지 생산 허용 가능성에 한국차 경쟁 심화 우려⁴⁷⁾

- 미국 대통령이 중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내 공장 설립 허용 의사를 밝히면서 업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
 - 현대차·기아의 주력 차종인 소형·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보급형 전기차는 중국 업체의 주요 수출 차종과 겹쳐 가격 경쟁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됨
 - 현대차그룹의 2025년 미국 판매량은 183만 6,172대로 국내 판매량보다 45.9% 많으며, 미국은 현대차그룹의 최대 판매 시장임
 -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2026년 7월 유럽 시장에서 한국차 브랜드 점유율은 7.6%로 중국 브랜드의 11.2%를 밀돌았음
- 업계는 중국 업체가 미국에 진출하려면 관련 규제 변경이 필요하지만, 현지 생산이 허용되면 가격·수익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은 관세 장벽과 중국의 차량 연결·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한 자동차 판매를 제한하는 커넥티드카 규정으로 중국차 진입을 막고 있음
 -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커넥티드카 규정을 수정하거나 예외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중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내 생산을 허용할 가능성을 제기함
 - 업계는 중국 업체의 미국 생산 시설·판매망 구축에 수년이 걸리지만 기존 공장 인수나 합작사 설립으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원가 절감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자동차 시장 점유율



자료: 한국경제(2026.09.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313731>(2026.09.28.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7) 한국경제(2026.09.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313731>(2026.09.28. 검색)

4 중국 주요 6개사, 상반기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 점유율 약 62% 기록⁴⁸⁾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국 주요 6개사의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57.2%에서 약 62%로 확대됨
 - 글로벌 전기동력차 판매량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하여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884만 7,000대를 기록했으며, 중국 6개사의 합산 판매량은 11.6% 증가한 550만 4,000대를 기록함
 - 중국 업체는 BYD 1위, 지리그룹 2위, 상하이자동차그룹 4위, 체리자동차 6위, 리프모터 7위, 창안그룹 9위로 판매량 상위 10위권에 6개사가 포함됨
 -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한 35만 8,000대를 판매하여 8위를 기록했으며, 협회는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과 다중 브랜드 전략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함
-  상반기 지역별 전기동력차 판매는 중국과 미국에서 감소한 반면, 유럽과 한국에서는 증가함
 - 중국 판매량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한 458만 대, 미국은 구매 인센티브 종료로 28.8% 감소한 55만 대를 기록함
 - 유럽 판매량은 보급형 모델 출시와 인센티브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한 235만 대를 기록함
 - 한국 판매량은 고유가 기조와 수입 전기차 판매 증가, 국산 모델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9% 증가한 20만 4,000대를 기록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8) 서울경제(2026.09.14.),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0673>(2026.09.2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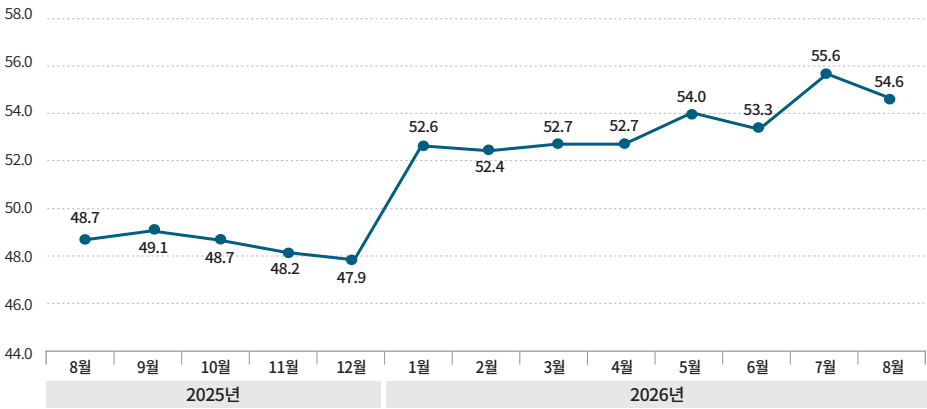
12) 잡화



1 2026년 8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54.6 기록, 확장 국면 8개월 연속 유지

- ◆ 2026년 8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55.6) 대비 하락한 54.6을 기록했으나, 기준선(50)을 웃도는 확장 국면을 8개월 연속 유지함
 - 2026년 1월 52.6으로 급반등한 이후 52~54p대의 확장 흐름을 이어오다, 7월 55.6으로 조사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함
 - 8월에는 7월 고점 대비 소폭 조정됐으나, 7월에 이어 조사기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2025년 하반기 위축 구간(50 이하)에서 벗어난 이후 확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 전월 대비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큰 폭의 개선세를 유지함
 - 전월(55.6) 대비 1.0p(1.8%) 하락하며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함
 - 전년 동월(48.7) 대비로는 5.9p(12.1%) 상승해, 위축 국면이던 1년 전과 비교해 제조업 경기가 크게 개선된 수준을 유지함
- ◆ 제조업 경기 확장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PMI가 8개월 연속 50을 웃돌며 생산과 수요 회복 기대가 지속되고 있음
 - 다만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이 하방 요인으로 남아 있음
 - 향후 신규 주문과 생산지표가 계속 개선되는지가 확장세 유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PMI	48.7	49.1	48.7	48.2	47.9	52.6	52.4	52.7	52.7	54.0	53.3	55.6	54.6	-1.8	12.1

자료: Trading Economics(2026.09.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6.09.29.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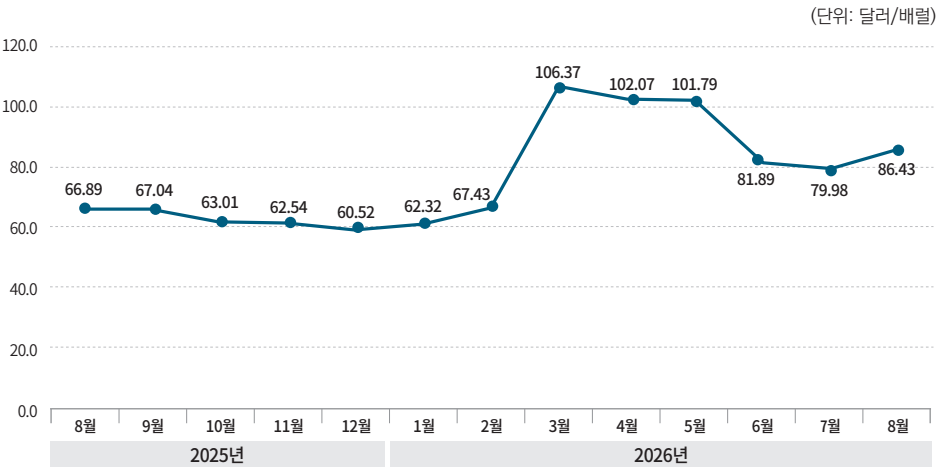
13) 유류



1 2026년 8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8.1% 상승

- 8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8.1%, 전년 동월 대비 29.2% 상승한 86.43달러를 기록함
- 3대 유종의 평균 가격은 2026년 3월 배럴당 106.37달러를 기록한 뒤 7월 79.98달러까지 하락했으며, 8월에는 86.43달러로 반등함
- 8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88.75달러로 전월 대비 15.6% 상승했으며, 브렌트유와 WTI는 각각 4.9%, 4.1% 상승한 88.08달러와 82.45달러를 기록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두바이유 27.9%, 브렌트유 31.0%, WTI 28.8% 상승함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69.39	70.01	65.00	64.47	62.05	61.97	68.40	128.52	105.70	103.15	79.45	76.75	88.75	15.6	27.9
Brent	67.26	67.58	63.95	63.66	61.63	64.73	69.37	99.60	102.46	103.71	84.43	83.97	88.08	4.9	31.0
WTI	64.02	63.53	60.07	59.48	57.87	60.26	64.52	91.00	98.06	98.51	81.79	79.22	82.45	4.1	28.8
평균	66.89	67.04	63.01	62.54	60.52	62.32	67.43	106.37	102.07	101.79	81.89	79.98	86.43	8.1	29.2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9.28.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9.28.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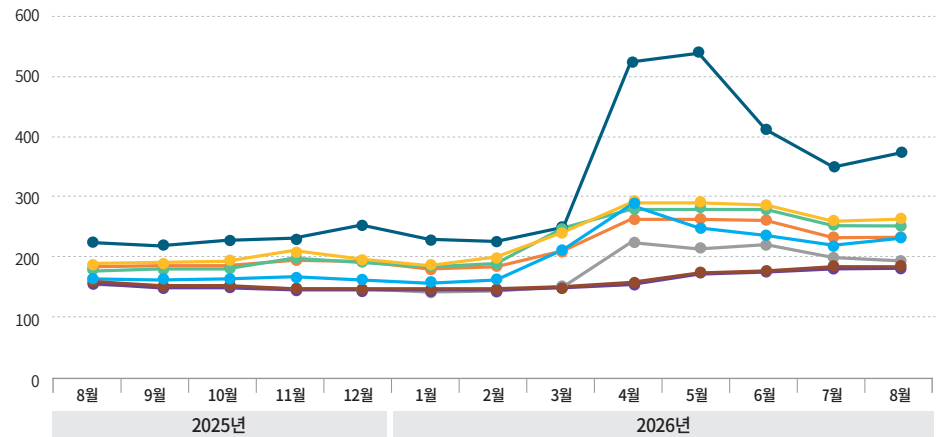
2 2026년 8월 석유제품 생산자물가, 제트유·중유 중심으로 상승

- 8월 석유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제트유·중유·경유가 각각 전월 대비 6.1%, 4.7%, 0.9% 상승했으며, 벙커C유와 휘발유는 각각 2.7%, 0.1% 하락함
- 8월 석유제품 생산자물가지수는 품목별로 등락이 엇갈렸으며, 등유·프로판가스·부탄가스의 전월 대비 증감률은 소수 첫째 자리 기준 0.0%를 기록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제트유 66.1%, 등유 42.6%, 중유 41.2%, 경유 38.4%, 휘발유 27.1%, 벙커C유 26.5%, 프로판가스 16.5%, 부탄가스 15.8% 상승함

(단위: 2020 = 100 기준)

주요 석유제품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휘발유
 ● 제트유
 ○ 등유
 ○ 경유
 ○ 중유
 ○ 벙커C유
 ○ 프로판가스
 ○ 부탄가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183.54	187.01	185.28	194.82	192.80	181.19	183.55	211.68	265.58	265.52	263.29	233.46	233.31	-0.1	27.1
제트유	224.04	219.69	228.03	231.42	253.78	229.72	226.17	249.67	525.83	540.48	413.74	350.62	372.07	6.1	66.1
등유	177.38	180.17	180.35	199.53	192.10	183.47	190.22	249.25	282.00	282.06	280.70	252.88	252.86	0.0	42.6
경유	189.98	191.88	192.88	212.31	196.89	186.87	200.77	242.49	292.58	292.78	288.94	260.74	263.01	0.9	38.4
중유	164.06	163.28	163.56	168.14	163.07	157.79	162.96	213.30	289.27	250.26	237.53	221.27	231.62	4.7	41.2
벙커C유	154.79	152.57	150.69	147.88	147.85	142.81	143.44	150.93	226.71	215.43	222.81	201.27	195.87	-2.7	26.5
프로판	157.19	150.49	150.49	146.20	146.20	146.20	146.20	149.49	155.59	173.14	176.87	183.10	183.10	0.0	16.5
부탄가스	160.80	153.49	153.49	148.38	148.38	148.38	148.38	151.67	157.95	175.87	179.67	186.22	186.22	0.0	15.8

주: 나프타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어 화학공업생산품의 주요 지표로 정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9.28\)](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9.28))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중동 원유 공급 불안 확대 속 비중동산 정제설비 투자 지원 지연⁴⁹⁾

-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가동이 중단되면서 중동산 원유의 공급 불안이 확대됨**
 - 사우디 동서 송유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여 하루 400만~500만 배럴을 운송해 왔으나, 9월 10일 드론 공격 이후 가동이 중단됨
 - 브렌트유 가격은 9월 14일 장중 배럴당 110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뒤 105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침
-  **비중동산 원유 도입 확대를 위한 정제설비 투자 세제 지원은 논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업계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함**
 - 국내 정유시설은 중동산 중질유 정제에 최적화되어 있어 다른 유종 처리 시 효율이 떨어지며, 업계는 설비 개조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부담을 호소함
 -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30년까지 내부식성 재질 교체와 탈염 설비 확충 등에 투자할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정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투자 규모와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정유업계는 향후 원유 확보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제설비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조선비즈(2026.09.15.),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6/09/15/X7WISAVQDJEGZACUHB464WMZR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6.09.28. 검색\)](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6/09/15/X7WISAVQDJEGZACUHB464WMZR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6.09.28. 검색))

4 9~10월 원유 물량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 도입 다변화 지원 확대 추진⁵⁰⁾

-  산업통상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내 정유업계의 사전 원유 확보로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정유업계의 2026년 7~8월 원유 도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이며, 9~10월 물량도 전년 동기 물량의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임
 -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이란 교전과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피격에 따른 원유 수급 및 유조선 통항 상황을 점검함
-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우회항로 전환 지원을 활용하고, 원유 도입 다변화에 따른 운임차액 지원 확대를 추진함
 - 정부는 민관 점검 체계를 통해 중동 정세와 원유 수급, 사우디 송유관 가동 재개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에즈 운하 등 우회항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임
 - 8월 24일 재시행한 비축유 스와프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되면 정부 비축유를 우선 제공하고, 해당 물량이 국내에 반입되면 상환받는 제도임
 -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변화 운임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정유업계의 대체 물량 확보와 원유 도입 다변화 유지를 지원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뉴시스(2026.09.1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14_0003788037(2026.09.28. 검색)

5 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우선 통항권 가격 상승, 북미산 에너지 수송 부담 확대⁵¹⁾

-  파나마 운하의 가뭄으로 통항이 제한되면서 대형 선박의 우선통항권 경매가격이 2026년 초 대비 15배 이상 상승함

 - 파나마운하청(ACP)에 따르면 2026년 5~8월 누적 강수량은 예년 동기 평균보다 약 34% 감소했으며, 운하 운영에 필요한 담수 공급이 줄어들음
 - 사전에 통항권을 확보하지 못한 선박이 구매하는 우선 통항권 경매가격은 연초 약 14만 달러에서 최근 대형 선박 기준 평균 230만 달러로 상승함
 - 8월에는 싱가포르 선적 대형 컨테이너선이 신속 통항권 확보에 400만 달러를 지불한 사례도 발생함
-  파나마 운하의 통항 비용 상승과 대기기간 증가로 한국의 북미산 가스 수입 비용 및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5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석유가스 제품 수입량은 5,476만 톤이며, 북미산은 1,244만 톤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함
 - 미국산 의존도가 90% 이상인 LPG를 비롯하여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에너지 수송은 통항 지연과 비용 증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적됨
 - 파나마 운하는 2023년과 2024년에도 가뭄으로 통항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어 관련 업계는 가뭄 반복에 따른 수송 차질을 우려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동아일보(2026.09.15.),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15/134672203/1>(2026.09.28.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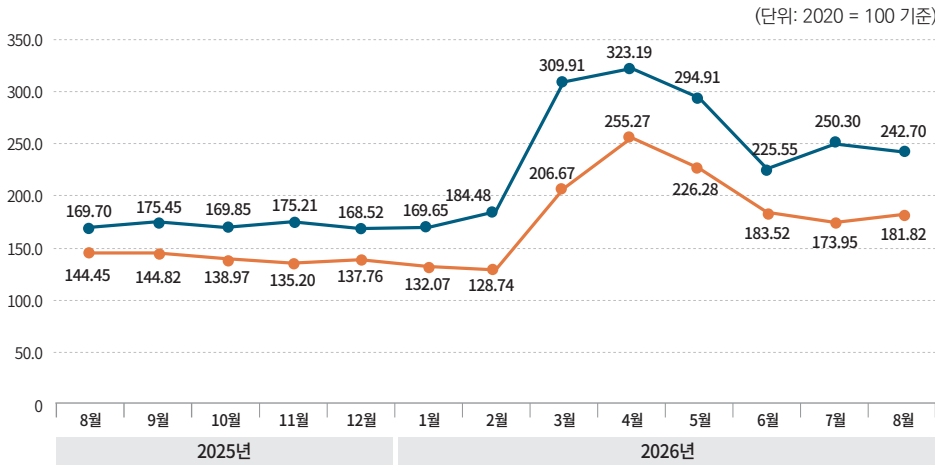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① 2026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하락 및 에틸렌 상승

- 2026년 8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3.0% 하락한 242.70p를, 에틸렌은 4.5% 상승한 181.82p를 기록함
-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는 6월 225.55p에서 7월 250.30p로 상승한 뒤 8월 242.70p로 하락했으며, 에틸렌은 4월 255.27p에서 7월 173.95p까지 하락한 뒤 8월 181.82p로 반등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가 43.0%, 에틸렌이 25.9% 상승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69.70	175.45	169.85	175.21	168.52	169.65	184.48	309.91	323.19	294.91	225.55	250.30	242.70	-3.0	43.0
에틸렌	144.45	144.82	138.97	135.20	137.76	132.07	128.74	206.67	255.27	226.28	183.52	173.95	181.82	4.5	25.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9.28.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9.28.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석유화학제품 15조 원대 가격 담합 혐의로 전현직 임원 8명 구속영장 청구⁵²⁾

-  서울중앙지검은 국내 석유화학업체 7곳의 제품 가격 담합 혐의를 수사하며, 9월 14일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
 - 수사 대상은 OCI, PKC,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한화솔루션, LG화학, 애경케미칼이며, 검찰이 특정한 담합 규모는 15조 원 이상임
 - 담합 의심 품목은 폴리염화비닐(PVC), 가성소다, 가소제, 염산, 염소, 하이포,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에피클로로히드린(ECH) 등 8종임
 - 검찰은 업체들이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을 이용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
-  검찰은 압수수색과 주요 경영진 소환조사를 통해 업체 간 가격 협의 정황을 수사하고 있음
 - 8월 5일 업체 7곳의 사무실과 관계자 등 8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함
 -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업체 중간 간부와 임원진이 여러 차례 만나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짐
 - 검찰은 9월 10일 주요 경영진을 소환 조사한 뒤 9월 14일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매일경제(2026.09.15.), <https://www.mk.co.kr/news/society/12152700>(2026.09.28. 검색)

3 롯데정밀화학·아모지, 그린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발전·병커링 협력 추진⁵³⁾

롯데정밀화학은 9월 9일 미국 아모지(Amogy)와 암모니아 기반 청정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양사는 롯데정밀화학의 암모니아 공급망·유통 인프라와 아모지의 암모니아 크래킹(분해) 및 모듈형 발전 기술을 결합하여 사업 협력을 추진함
- 그린수소 충전소 분야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이 그린암모니아를 공급하고, 아모지의 분해 시스템으로 충전소 현장에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함
- 분산형 발전 분야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이 암모니아 공급·저장을 담당하고, 아모지가 발전 모듈을 제공하여 상업시설과 지역사회 단위의 발전설비 구축을 추진함
- 선박 병커링 분야에서는 울산항의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터미널을 활용하여, 아모지가 개발 중인 암모니아 기반 발전 모듈을 탑재할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3) 연합뉴스(2026.09.10.),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0028700003?input=1195m>(2026.09.28. 검색)

4 아문에너지, 200억 원 규모 그린암모니아 기반 수소 분산 발전 투자 추진⁵⁴⁾

- ▶ 포항시와 아문에너지는 9월 2일 그린암모니아 기반 수소 분산발전 설비 구축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아문에너지는 GS건설과 미국 암모니아 발전 기술 기업 아모지(Amogy)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약 3,000평 부지에 발전설비를 구축할 계획임
- 우선 1MW 규모의 전력 생산 실증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설비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최대 40MW의 발전 능력을 확보할 계획임
- 생산 전력을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한국전력 등에 공급할 예정이며, 포항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4) 뉴데일리 대구·경북(2026.09.02.), <https://tk.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02/2026090200364.html>(2026.09.28. 검색)

연구책임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부연구위원

박세리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찬호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9월 30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